JUL 1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75 1982년 7월 15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July 15, 1982

올스타게임서 6만관중 열광

내셔날·리그11연승

아메리칸·리그에 4:1, 장훈도 시구

(몬트리얼 올림픽스타디엄=유승민·정관성기자)

북미프로야구 내셔날·리그(NL)의 쇼트·스탑 데이브·컨셉션(신시내티·레즈)의 투런·홈런은 내셔날리그에게는 11연승의 기록을, 선수본인에게는 MVP(최우수선수상-올스타의 유일한 상)을 안겨줬다.

1회초 선공에 나선 아메리칸·리그는 센터앞 안타로 진출한 릭·핸더슨(오클랜드)을 3루에 두고 4번타자 레기·잭슨(L.A.앤젤스)이 희생타를 날려 1점을 선취했으나 내셔날·리그는 2회말 컨셉션의 레프트·펜스를 넘는 투런결승홈런등 4:1로 승리, 아메리칸리그에게 11연패의 치욕을 주었다.

세계프로야구의 꽃인 53회 올·스타 게임은 13일 몬트리얼 올림픽스타디움에서 한국의 장훈, 미국의 행크·아론, 일본의 나가시마, 캐나다의 클로드·레이몬드 등 11개국을 대표한 왕년의 프로야구 올스타 12명의 합동시구로 시작했다.

트루도 연방수상, 온타리오 데이비스수상등 정치가와 미국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보위·쿤, 한국의 서종철 프로야구 커미셔너및 세계의 프로, 아마 야구관계자들이 참석한 올스타게임은 59,057명 관중을 시종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10연패의 치욕을 씻으려는 아메리칸리그는 대리감독 빌리·마틴(오클랜드 A's)을 중심으로 26명의 선수가 분전했으나 관록의 내셔날·리그에게는 역부족, 내년의 시카고대회를 기대하면서 또 다시 주저앉았다.

아메리칸리그 감독 빌리·마틴은 전년도 월드시리즈 우승팀 뉴욕·양키즈의 밥·레몬감독이 금년봄 구단주 스타인·브레너에게 쫓겨나는 바람에 대리로 감독을 맡았다.

이번 올스타전에서는 라스베가스 도박사들이 금년도 월드시리즈 제패의 제1후보로 꼽고 있는 엑스포스선수들이 대활약했다.

스타팅 투수이며 승리투수인 스티브·로저스, 연봉 2백만달러의 게리·카터, 외야수 앙드레·도우슨, 팀·레인스등 4명의 주전과 1루수 알·올리버등 모두 5명이 출전(내셔날·리그)한 엑스포스는 6만명의 프렌치·캐네디안을 열광시켰다.

게임후 승리감독 톰·라소다(L.A.다저스 감독)는 "빌리(아메리칸·리그)에게는 미안하나 이길 수 밖에 없었다"면서 약을 올리자 패장 빌리는 "적시타를 못 날렸다"고만 대꾸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번 올스타게임은 1933년에 시작된지 처음으로 미국땅을 벗어나 개최됐으며 야구가 미국, 일본등의 독점물아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대회였다. 특히 일본은 NHK방송을 비롯, 약 20여명의 기자들이 모여 취재경쟁을 벌였으나 한국기자는 본 토론토지사및 몬트리얼지국 파견 2명뿐이었다. 미국, 캐나다 전역에서 모인 야구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올스타사상 가장 멋진 대회였다"고 말했다.

게임전 보나벤처호텔에서 있은 보위·쿤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주최의 오찬회에서 트루도수상은 "이 연단에 서니 내가 가장 가난한 봉급쟁이"라고 조크했다. 트루도수상은 또 객석에 앉은 윌리엄·데이비스 온타리오주수상을 보고 "맥주마시면서 야구를 보기위해 왔느냐?"고 조크, 온타리오주의 보수성을 꼬집었다.(온타리오주는 최근까지 야구장에서 음주를 금지했으나 곧 이를 허용한다.)

베넷 B.C.주수상을 대표로 한 뱅쿠버는 캐나다 최초로 83년에 실내경기장을 완성하는 것을 계기로 프로야구유치 운동을 맹렬히 전개, 커미셔너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보위·쿤 커미셔너는 13일의 오찬회에서 "야구는 '88 서울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것을 확신하며 야구의 세계화에 힘쓰겠다"고 말하면서 캐나다로서는 3번째로 뱅쿠버의 프로야구팀 창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커미셔너는 선수스카웃, 팀확장등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감독관이다.

↔ 올스타 전적 ↔

아메리칸	내셔날
1	0
0	2
0	2
0	0
0	0
0	1
0	0
0	0
0	×
득점 1	4
안타 8	8

캐나다배구팀 15일 한국과 대전

(서울14일=연합)캐나다와 인도의 국가대표배구팀이 13일 국제친선배구대회 참가차 서울에 도착했다.

이들은 미국및 한국 대표팀과 친선게임을 갖는다.

캐나다는 15일 한국, 16일 미국, 17일 인도와 각각 대전한다.

◆올스타게임에서는 무리하지도 거칠지도 않은 게임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 그러나 13일밤 몬트리얼 게임은 열전의 열전. 프로야구 최고 연봉선수인 양키즈의 주자 데이브·윈필드는 내샤널·리그의 2루수 스티브·색스(왼쪽)의 더블·플레이에 휘말리지 않게 획 날라 색스의 밑에 깔려 세잎. 두 선수의 모자도 곤두박질했다. 원내는 투·런·홈런의로 MVP상을 탄 데이 브·컨셉션.

6개월간 5천업체 파산(37% 증가)

경기회복은 "내년초"부터

(오타와)금년 상반기(1-6월)중 전국 파산업체의 수는 5,383개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라는 기록적 증가율을 보였다고 13일 연방정부가 발표했다.

이에 비해 캐나다파산업협회(Canadian Insolvency Association) 회장 가스·맥거씨는 "정부의 통계는 실제의 반밖에 안된다. 선고없이 파산하는 경우나 다른 기업에 흡수되는 업체를 합친다면 현재의 실업률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12일 현재 정부 발표 실업률은 10.9%이다.

맥거씨는 "앞으로 더 두려운 것은 금리를 못견디어 나자빠질 기업의 숫자이다. 만약 대기업 몇개가 흔들리면 실업률이 15~16%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상최악의 공황이었던 1930년대의 실업률은 25%정도 였다.

캐나다 소매업자협회의 존·길레스피씨는 13일 특히 소매업계의 파산율은 참담하며 정부가 지난 1년반동안 경제에 대해 "감상적인 질할기식 태도를 취한 때문에 녹아난 것은 소매업자들로 정부는 지금 당장 모종의 단안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지출 삭감과 긴급 실업구제책을 요구했다.

13일 캐나다 커머스은행은 "캐나다 경제의 전환점은 내년에나 올것이며 미국의 경제가 최근 최악의 수준을 넘어서 회복의 조짐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캐나다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기에는 장시간이 걸린다고 예견했다.

이규광씨 혐의 부인 이순자여사의 삼촌

(서울14일=연합)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여사의 삼촌 이규광(57) 전 광업진흥공사사장은 14일 장영자·이철희부부의 어음사건에 주모자적 역할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극구부인했다. 장여인의 형부인 이씨는 서울지방형사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공판에서 "장·이부부의 한국·아랍합자은행 설립추진에 협조해 주도록 요청받은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장여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그 돈은 둘째아들의 결혼축하금이었지 뇌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장여인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총 32명이다.

4인 식비 1주 90달러

(오타와)1가족 4인의 1주 평균식비는 $90.22로 작년보다 10.53%가 올랐다.

연방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소매물가에 따르면 식비가 오른 주원인은 캐나다 달러의 가치하락과 도매물가 인상이다.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수입해 오는 파일·야채값이 캐나다 달러가 미화 $1당 76.83센트로 떨어지는 바람에 급격히 뛰었고, 6월중 쇠고기, 돼지고기가격도 2~5% 뛰었다.

캐나다 농림성은 7월중 캐나다산 야채·파일이 시장에 나온 뒤라야 식품비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국일보
533-2361

"섹스는 80살까지"

한국노인의 성생활 조사

(서울14일=연합)80세의 한국노인들도 성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14일 드러났다.

동덕여대 이연숙교수팀이 60세이상 남녀 25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89.4%, 여성의 30.9%가 성생활을 유지한다. 응답자중에는 80세 이상자도 있다.

조사대상자중 33.6%는 이성파의 정신적 유대감을, 17.6%는 육체적 접촉을, 14.8%는 단지 섹스만을 원했다.

또한 64.6%는 이성파의 교제를 원했다. 이를 남녀로 구별하면 남성이 77.1%, 여성이 60.8%였다.

"현대사회와 노인복지"라는 주제하에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이 논문에서 이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노인의 성문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소홀해왔다고 비난하고 이는 학문적인 견해로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복지문제에도 필수적인 것으로 많은 노인병이 성문제를 추적함으로써 해결되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교수는 노인들의 애정문제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은하 보석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 콤 화 장 품
귀 국 선 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감사말씀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노재빈)께서 1982년7월7일 하나님 곁으로 떠나셨읍니다. 이번 장례에 여러 친지들, 이웃과 교우들 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감사드리는 것이 도리오나 먼저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1982년 7월 일

유가족 :

미망인 : 유화린
맏아들 : 노영석 맏며느리 : 최혜자
둘째아들 : 노동석 둘째며느리 : 송순자
세째아들 : 노남석 세째며느리 : 최정숙
네째아들 : 노경석 네째며느리 : 윤명숙
맏 딸 : 노영월 맏 사 위 : 김사백
둘 째 딸 : 노남월 둘 째 사 위 : 박의흠
세 째 딸 : 노경월 세 째 사 위 : 임대규
네 째 딸 : 노동월

제2회 "한인민족상"

시상식에의 초대

녹음 우거진 청량의 계절, 하시는 사업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제정, 한인민족상운영위원회 주최 제2회 한인민족상에 영예의 수상자로 선출된 아래 4씨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부디 오시어 복된 자리에 빛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김영숙씨

◆권오율씨

때 : 1982년 7월17일(토) 하오 4시
곳 : 토론토 한인회관
(20 Mobile Dr. Toronto)
수상자 : 학술상—권오율, 예술상—김영숙
공로상—박재선, 봉사상—김원겸
※식후 다과파티

◆김원겸씨

◆박재선씨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 상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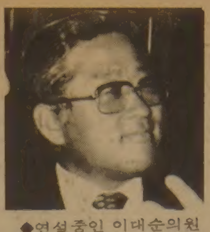
'출발에서 도착까지.'

즐거운 서울방문은!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매주 출발
이민, 방문 초청안내
국내, 국제항공표
535-6004 535-8801
신속, 정확한 컴퓨터 써비스
서울여행사
IATA
631 A BLOOR ST. W. TORONTO
최 동 주 R293-9970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이대순의원 리셉션
토론토대총장 공관서


◆연설중인 이대순의원

제임스·햄 토론토대학총장은 13일 밤 한국의 이대순 국회의원(민정당)을 위한 리셉션을 자택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는 토론토대학교 한국학과후원재단 관계자들을 위시해서 토론토대학동양학부 교수들, 이상훈 총영사·박인순한인회장및 이의원과 동창인 서울법대 출신자등 많은 교포인사들이 참석했다.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이의원(49·전남 고흥·보성선거구)은 햄총장 초대로 지난 6일부터 토론토를 방문, 토론토대학에 한국정부 지원으로 한국학과를 설치하는 문제로 현지답사하고 있다.

햄총장은 작년 10월 이 문제를 한국정부 당국과 협의하기 위해 한국에 갔으며 이때 이의원과 자주 접촉했다.

이의원은 이날밤 개인돈 미화 5백달러를 한국학과후원재단(이사장 윤여화)에 기증했다.

박인순 한인회장및 팬아시아식품도매상 이창복사장도 각각 5백달러씩 희사했다.

햄총장은 이날밤 한국방문 때의 경험담을 애기했고, 이의원은 양국관계에 대해 말해 갈채를 받았다.

구독은
533 2361

이의원 발언요지(윤여화씨 통역)는 다음과 같다.

〈이대순의원 발언요지〉 "태평양은 고속도로"

1888년 캐나다인 최초로 게일(Dr. Gayle)씨가 한국에 와서 YMCA운동, 기독교 선교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영한사전을 최초로 만들고 한국문화를 캐나다에 소개했다.

그는 토론토대학 출신이며 토론토 시민이었으므로 토론토대학교와 한국은 90여년전에 이미 관계를 맺었다.

양국의 정식 외교역사는 20여년밖에 안되지만 스코필드박사의 독립운동, 6·25동란 때의 지원등 한국은 캐나다에 많은 빚을 졌다. 2,200명의 캐나다참전군중 4백명이 한국의 여러 전장터에 묻혀있다. 이때문에 한국민은 캐나다에 감사한다. 75년 이후 캐나다의 대한국 수출량은 연간 70%씩 증가했고 금년 쌍방 총교역량은 10억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것은 양국민의 정신적 결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1주일간 이곳에 머물면서 나는 많은 것을 듣고 보았다. 특히 토론토대학이 한국문화및 역사 강좌를 갖고 한국학과를 대학에 설치하려는 노력에 감사한다.

나는 귀국해서 양국 문화교류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6년후인 1988년은 양국 모두에 큰 의미가 있는 해이다. 첫째, 게일씨의 한국도착 1백주년이며, 둘째, 같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해이다.(서울서는 여름올림픽, 캘가리서는 겨울올림픽이 열린다.)

이것은 우연만은 아니며 양국 국민에 희망을 주는 사건이다. 양국의 유대강화는 모든 태평양국에도 이득을 줄 것이다. 태평양은 이제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문화교류의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이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토론토대학이 양국의 관계를 더욱 굳히고 동서양 연결의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

"여름철을 즐겁게"
토론토 주변의 어린이 낙원들 ②

◆짓고, 올라가고, 뛰고 노는곳

하버프런트(Harbour front)의 8세미만의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놀이터(The Creative Playground)와 그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모험놀이터(The Adventure Playground)가 있다. 자유창작 놀이터의 여는 시간은 상오10시~하오5시. 사다리, 널빤지, 각목등 건물을 짓고 노는데 필요한 모든재료가 준비되어 있다.

모험놀이터는 나무, 벽돌, 페인트, 진흙, 밧줄등을 준비해 놓고,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동원, 스스로 독창적인 것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등록은 961-5060. 등록금은 무료.

◆물고기와의 대면

온타리오아트갤러리(Art Gallery of Ontario)는 바다밑(Under the Sea)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으로 4~12세 어린이들을 초대한다. 1시간 가량 소요되는 이 프로그램은 화~토요일, 상오11시~하오4시까지 계속된다.

어린이들은 바다에 사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을 직접 구경하고 만질 수 있다. 갤러리 입장료는 12세미만은 무료, 12~16세는 50센트, 어른은 $2이다. 어린이는 어른과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스포츠를 즐기자!

메트로·토론토지역은 어린이들을 위해 각종 스포츠프로그램으로 꽉 차있다. 메트로의 각지역(Borough)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그 지역 레크레이션국에 문의하면 된다.

노스욕의 센테니얼 여름하키학교(The Centennial Summer Hoccey School)는 여름내내 하키도구와 경험이 있는7~13세 어린이들에게 1주일간의 하키강습을 실시한다. 회비는 $65. 자세한 문의는 224-6267.

세네카칼리지는 야구, 농구, 체조, 하키, 테니스및 축구캠프를 갖는다. 수업료는 일주일에 $20~125. 이에 대한 문의는 493-4144.

◆놀이터를 찾아서

메트로의 각지역 놀이터 프로그램(Municipal Playground Program)은 여름을 즐기는데 안성맞춤이다. 「Penny Carnivals」, 「Pupper-Making」, 「Pirate Week」, 「Buttom-Buttom Who's-Got-The Buttom」등 여러가지놀이는 메트로 놀이터에서 수십년동안 어린이들이 즐겨하던 놀이들이다.

이스트욕(East York)은 7개의 감독자가 있는 놀이터가 있고(장소에 대한 문의는 461-9451), 이토비콕(Etobicoke)은 34개의 놀이터와 15개의 지역학교(문의는 Jacquie Gould 626-4384)가 있다. 노스욕(North York)은 292개의 공원에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224-6250), 욕(York)은 22개의 놀이터(653-2700), 스카보로(Scarborough)는 40개 학교에서 놀이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296-7411) 토론토(Toronto)는 125곳의 놀이터가 있다(367-7259).

대부분의 이같은 프로그램은 7~8월주중 상오9시부터 하오4시30분까지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간편하며, 다채롭고 재미있다. 물론 무료.

◆데이캠프(Day Camp)를 가자!

여름데이캠프와 데이프로그램은 무진장이다. 어떤것은 엄격하게 지역적이며, 어떤것은 메트로 전체를 상대로한다. 또 보조를 받는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1만 내는 것도 있으나, 참가 $100짜리도 있다.

42페이지에 달하는 캠프 명단은 지역정보센타(Community Information Centre 863-0505)에 연락하면 된다.

다음은 메트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캠프의 몇가지 실례이다.

웃그린커뮤니티센타(The Woodgreen Community Centre)는 퀸스트릿(Queen St)과 로간애비뉴(Logan Ave)지역에 사는 6~12세 어린이 15명에게 1인당 1주 $1의 「시내여름프로그램」(In City Summer Program)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각종게임, 요리교실과 마린랜드(Marineland)와 같은 볼만한곳의미니버스 여행이 포함된다. 자세한 문의는 461-1168.

하버프랜트의 「물가의 캠프」(Camp by the Water)는 6~12세 어린이들을 위한 것으로 2주에 $115. 요트항해술, 연극, 커누노젓기, 펜드치는법등을 배운다. 문의는 869-8432.

욕보로우(York Borough)의 YMCA에서는 5~12세 어린이들을 상대로 어린이 회전목마 캠프(Children's Carrousal Camp)를 연다.

2주간의 캠프 등록비는 $110. 공예, 게임, 하이킹, 자연답사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문의전화는 763-1193.

롬바드스트릿(Lombard St)에 있는 파울린맥기본 문화센터(The Pauline McGibbon Cultural Centre)는 8~12세 대상으로 실지견학(Field Trip), 창작글짓기, 연극, 공예및 자연관찰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실시한다. 등록비는 $54, 더많은 정보는 368-4498.

세네카칼리지가 주최하는 8~18세 대상의 토론토 옛스타일 투어스캠프(Toronto Kidstyle Tours Camp)는 일주일간 $90로 식사가 포함돼 있고, 어린이들은 메트로동물원, 싸이언스센터, 온타리오정부 청사, CN타워, 메트로경찰 말조련장, 아프리카 라이언 사파리및 나이아가라폭포 같은 곳을 방문하게 된다.

토론토내의 중앙 YMCA(921-5171)는 무스코카(The Muskoka)에 야영캠프, 체조캠프, 문화예술 캠프, 항해캠프, 스포츠캠프를 비롯하여, 토론토 아일랜드에서의 데이캠프도 주관한다. 중앙Y는 학령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캠프(Kinder Camp)도 시내 여러군데 공원에서 실시한다.

등록비는 $65의 2주간 유치원캠프부터 $120의 체조, $390의 야영캠프까지 있다.

이토비콕(Etobicoke) YMCA에서도 2주간의 승마캠프를 $215에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36-1195.

YMCA에서는 여름철내내 토론토와 스카보로지역 공원에서 5일 캠프를 가진다. 등록비는 $40. 문의는 전화 961-8100.

〈끝〉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7〉

冷血 ⑪

그녀의 비참한 넋두리…"惡魔 같은놈"

그녀는 그야말로 위세당당하게 소리쳤다. 화가 난 김에 될대로 되라는 기분이 되어 정신없이 쏘아댔다.

『흥, 너, 여기 얼마나 오래 붙어있나 어디두고 보자! 두고보자구!』

하도 기세좋게 펄펄 뛰는 바람에 여직원은 맞서지 못하고 점점 수그러들었다. 더구나 그녀의 말은 다분히 위협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약한 사람들의 기를 꺾어 놓기에 충분했다. 눈치빠른 프론트맨이 여직원을 밀어젖히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연방 허리를 굽히면서 용서를 빌었다.

『죄송하게 됐읍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랬읍니다.』

『교육좀 잘 시키세요. 기분 나빠서 이 호텔에 어디 다시 오겠어요.』

그녀는 조그맣게 오그라들어있는 여직원을 한번 흘겨보고나서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놀랍게도 30만원 가까운 계산이 나와있었다. 방값에 식사대, 주류대, 심지어 코피값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방값만 계산하면 될줄 알았던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얼마나 고급으로 처먹고 마셨으면 혼자서 하룻밤새에 이렇게도 많이 썼을까. 그러나 호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치를 보여서는 안되겠기에 그녀는 짐짓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중얼거린 다음 계산을 치렀다. 얼굴 표정은 돈에 구애받지 않는 부자집 마나님 처럼 오만했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돈을 내고 돌아서서 출입구 쪽으로 몇걸음 가다말고 그녀는 흠칫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모세가 막 그녀 앞을 스치듯 지나갔던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위협적인 시위였다. 문자가 눈에 불을 켜고 그를 노려보고 있는 동안 모세는 그녀 앞을 지나 출입구쪽으로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번도 이쪽을 돌아보지 않은채 회전식 도어를 밀고 밖으로 나갔다. 일부러 보란듯이 이쪽을 철저히 묵살해버린 것이 분명했다.

문자는 그 뒤를 급히 쫓아갔다. 그를 붙잡고 결판을 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밖으로 나갔을때 모세는 택시에 올라 막 문을 닫고있었다.

『여보세요!』

그녀는 뛰어가 문을 잡았다. 그리고 다급하게 말했다.

『이야기좀 해요!』

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그녀를 쳐다보더니 문을 쾅하고 닫았다. 그리고 운전사에게 출발하라고 일렀다.

『악마!』

그녀는 모세를 노려보면서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목에 잠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모세를 태운 택시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자리에 넋을 잃고 서있다가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조금 전 호텔에서의 그 위세당당하던 태도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초라한 30대 여인으로 돌아가 있었다.

『악마 같은 놈… 자동차 사고나 당해 콱 뒈져라.』

그녀는 중얼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것은 자신의 중얼거림이었다. 자신이 어느새 그의 죽음을 바라고 있는 것을 알고 더욱 기분이 비참했다.

남의 호텔비 30만원을 아[illegible]소리 못하고 물어줬다는 사실이 가슴에 못이 되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무리 남편이 대회사 중역이고 수입이 좋다고 하지만 그의 는 역시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이었다. 그런만큼 그의 수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朴 男 그림

토론토성공회 재건시도
석균우신부 정기예배

◆석균우 신부

토론토한인성공회가 새 주임신부를 맞아 교회재건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3월 스카보로 내티비티 교회(Church of Nativity)의 퍼거슨(Furguson) 신부 초청으로 이곳에 온 석균우 신부(44)는 토론토에 한인성공회가 없어진 것을 알고 토론토교구청에 교회재설립을 신청, 지난 4월말부터 흩어진 옛교인들을 모아 내티비티교회에서 예배를 보고있다.

교회가 정착해서 성장할 동안 머무르면서 봉사하겠다"고 밝힌 석신부는 이곳에 오기전 한국성공회 대전교구 천안교회에서 시무했었다. 토론토의 한인성공회는 수년간 장정문신부가 담임해 왔으나 "장신부가 친북한 노선을 걷는다"는 비난을 받은 후 교세가 줄어 교회가 없어졌다.

영국에서 시작되고 캐나다에서는 가장 큰 교세를 가진 성공회(The Anglican Church or the Episcopal Church)는 신·구교 예배(미사)형식을 혼합하여 예배보는 것이 특징이며 교리면에서도 신·구교의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어 신·구교를 연결시키는 "가교교회"(Bridge Church)라는 소리를 듣곤 한다.

한국에는 1889년 처음 성공회가 들어온후 현재까지 교회수 80, 신도 5만이며 서울, 부산, 대전 3교구로 나뉘어져 있다.

석신부는 연대 신대, 성공회 성·미카엘신학교를 거쳐 67년 서품을 받은 이래 부산, 대구, 진천, 천안등지의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며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실행위원이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광식(40)여사와 1남1녀가 있다.

영여왕 침실에 괴한
침대에서 여왕과 대화

(런던=영국)마가렛·대처 영국수상은 12일새벽3시 엘리자베스여왕의 침실에 53세의 괴한이 침입한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영국정부가 포클랜드전쟁 종식을 공식으로 선언한 12일 발생한 이 사건은 영국을 발칵 뒤집었고, 야당은 왕실경비에 소홀한 윌리엄·위트로 내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건을 제일 먼저 보도한 데일리·익스프레스는 이날 새벽3시께 침실에 침입한 괴한은 깨진 유리재털이를 손에 쥔 채 피를 흘리고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여왕은 잠결에 T셔츠에 진바지차림의 괴한이 침대에 올라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당황하지 않고 괴한과 약10분간 담소를 나눈 여왕은 괴한이 담배를 요구하자 담배를 갖다 주겠다고 나가서 하인을 불렀다"고 보도했다.

여왕은 육체적으로 아무 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재판정에 선 문제의 괴한은 술반병 절도죄로만 기소됐다. 그가 어떤 의도로 여왕침실에 잠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당시 여왕의 남편 필립공은 다른 침실에 있었다.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12건의 왕궁침입사건이 있었다. 여왕관저인 버킹햄궁은 군대, 경호요원과 강도경보장치, 폐쇄회로 TV등으로 보호해왔다. 이사건을 계기로 철조망과 확성기를 장치했다.

천주교 노인회 록키관광 떠나

50명의 천주교 한맘노인회(회장 김성근) 회원들은 오는 19일 캐나다 록키 관광차 7박8일 예정으로 토론토를 떠난다.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타고 에드먼턴에서 내려 「밴프」, 「재스퍼」등 캐나다 록키의 명소를 구경하고 버스편으로 뱅쿠버와 빅토리아에 들린다. 토론토 귀착은 26일. 1인당 650달러.

제5계절

우는 미륵(彌勒)

이 유 소(토론토대학 대학원생)

◆이유소

일본 교우또의 우즈마사라는 곳에 광륭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 이곳에 유명한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있다.

왼편 다리를 오른편 무릎에 걸친 자세로 걸터앉아 허리를 약간 굽힌채 명상에 잠겨있는 형태를 한 불상이 반가사유상이다.

이런 양식의 불상이 중국에서 남북조시대에 많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전해져 오히려 중국보다도 훌륭한 작품들이 나왔다.

오늘날 남아있는 적지않은 반가사유상 가운데 단연 으뜸가는 걸작이 바로 이 광륭사의 미륵보살이다.

다만 예술적 감각이뛰어났을 뿐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주는 정신적 감동이 또한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더우기 그 얼굴에 감도는 듯 마는 듯 하는 잔잔한 미소는 시달리고 지친 영혼을 감싸주고 달래주기에 족하고도 남는다.

이렇듯 뛰어난 예술품인 만큼 일본사람들이 자기나라 작품이라고 우기나, 우리나라에서 건너갔거나, 우리나라에서 간 기술자가 만들었으리라는 견해가 오히려 지배적이다.

우즈마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임을 비추어 보면 더욱 수긍이 가진다.

그런데 광륭사에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불상도 우리나라에서 갔다고 한다. 절의 기록에 따르면 원나 신라에서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

이 불상은 다르다. 다른 어느 불상과도 다르다. 하고 많은 불상 가운데 이런 불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르다. 불상이면 의례 있게 마련인 온유하고 자비로운 미소가 이 불상에는 없다. 대신 섬찟할 정도로 찡그린얼굴, 고뇌로 쥐어짜는 듯한 얼굴, 위안을 얻으러 갔다가 오히려 동정을 느낄 정도의 얼굴이 있을 따름이다.

이 불상을 일본사람들은 「나끼미로꾸」라고 부른다. 「우는 미륵」이라는 뜻이다.

이 「우는 미륵」을 처음보았을 때의 충격을 나는 잊지 못한다. 똑같은 양식을 한 두 불상, 그러나 그처럼 다른 두 불상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된 것도 무슨 운명의 힘일까?

세상의 두 면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도 있었을까?

그보다 과연 누가 무슨 마음에서 이런 무서운 불상을 만들었은지,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

미륵은 미래의 부처이다. 먼 먼 훗날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하러 세상에 온다는 구세주이다. 천여년전 그 옛날, 신라사람들은 무슨 의도에서 이런 희망의 상징에 그토록 절망에 찬 얼굴을 새겨 넣었을까?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한양 중·공고
임시총회 소집

동문제위!

휘뫼에 높고도 푸른뜻으로 한가람에 맑고도 깊은 맘으로…

어언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했고 우리들 이 이민생활은 안정기반에 들어 섰읍니다.

이제 도약의 새시대를 열기위한 협동의 광장으로 그동안 소식이 없었던 한양중·공고 동문은 한자리에 모입시다.

일 시 : 1982년7월31일(토) 밤11시
장 소 : 뉴서울식당 2층(529 Bloor St. W)
안 건 : 1. 회장및 임원선출의 건
2. 가족동반 야유회 건
3. 기타 토의 사항
※재캐나다 거주 동문은 이번 기회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김오석 534-3648
김더기 532-1054(제일식품)
김영상 459-3363
박인순 533-3545

한양중·공고
동문회장 김 오 석

〈서울식품 서부〉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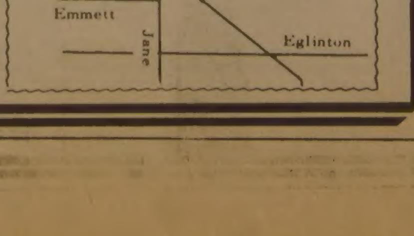
저희 서울식품 서부지점 개업에 많은 성원을 해주신 교민 여러분께 보답코자 오는 7월24일(토)까지 냉면(2인용)을 Free로 드립니다. 일차 왕림하셔서 구경하십시요. 저렴한 가격에 철저한 봉사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조·김영록 배

1391 Weston Rd.

☎ : 243-9544



브라질 "봉디아"
⚜ 친목회 ⚜

브라질에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

금번 제4회 친목및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온가족 동반하시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 일 : 1982년 8월 7일(토) 11시
(음식은 각자지참)
장 소 : Sunny Brook Park
(축구장옆, 마지막 주차장)

♣오락과 상품이 준비되었음.
연락처 : 성용창 759-3583
박정환 533-7759
♣우천시는 다음주로 순연함.

봉디아친목회
회장 성 용 창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제3차 이사회

토론토썬문제등 대책강구

감사에 함덕상씨, 선관위원에 이휘씨 보선

지난7월11일(일) 김태진 이사장댁에서 개최된 제3차정기이사회는 궐석중이던 선거관리위원에 이휘씨, 감사위원에 함덕상씨를 보선했다.

이어서 이날의 주요 의제로 「토론토·선」지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대책을 놓고 장시간 논의를 한 결과, 가능한한 극한 투쟁에 돌입하기 전에 한번 더 회장단으로 하여금 「Sun」본사를 방문하고,

(1)각회원 상점의 신문원가 차이(현재 18.75센트~21.25센트등 여러가지 가격이 있음)를 조정하고,

(2)K.B.A의 Credit을 전담하는 직원을 선정해 줄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결과 에의치 않으면, (3)시범케이스로 수개의 대표적인 회원상점의 사건을 본보기로 협회의 책임하에 고소를 제기하며,

(4)「토론토·스타」와 「글로브 앤드 메일」등 주요신문지상에 「썬」지의 횡포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시에는,

(5)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집행부에 의뢰했다.

한편, 팝회사의 Promotion 추진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난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준경, 박경택, 송재규 3명의 이사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와 협력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결했다.

중반기 재무감사 실시

지난 7월8일(목)협회의 회계년도말을 앞두고 중간 사무감사와 회계감사가 협회사무실에서 실시되었다.

관계임원과 사무원이 입석한 가운데 서도준, 고정배 두 감사가 약2시간에 걸쳐 실시한 감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감사관계자 일동

▲재무감사

1.전반적인 장부정리가 완비되어 있음.

2.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및 서명이 잘되어 있음.

3.시정요망사항

(가)예비비 항목지출을 해당 항목으로 이관하여 지출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음.

(나)예비비 항목중 큰 금액이 지출될 때에는 협회 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 후 지출하는 것이 좋겠음.

▲행정감사

1.각종서류의 관리, 분류, 보관이 잘되어 있음.

2.상담실운영의 체계가 잘 잡혀 있고, 특히 미결사항의 계속추진이 잘되고 있음.

3.모든 임직원들이 업무파악을 잘하고 있음.

4.시정요망사항

(가)사무요원수에 비해 행정서류의 종류와 관리업무가 과다하므로 집행부에서 구상중에 있는 Computer의 구입이 좋은대책으로 사료됨.

(나)월별 또는 주별 사업목표의 설정과 그 수행실적의 점검이 요망됨.

(다)상담 또는 행정상 전화이용 이외에 문서의 이용도를 높여 줄 것을 요망함.

요크·아이스크림 스페시얼

GOOD'N PUDDIN 25¢

York아이스크림회사는 7월19일부터 4주간 K.B.A회원상점에 한하여 일반가격 40~45센트인 Good'n Puddin (2종 초콜렛, 버터스카치)을 25센트에 Special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일반가격 $7.30인 24개들이 BOX를 $3.80에 공급하여 38%의 이윤을 보장하고, 그외에 리베이트가 나가게 되는 유리한 조건이다.

회원여러분은 이 기회에 Special을 최대한 이용하길 바란다.

험티·덤티 프로모션

200g bag 5 c/s 에

1 c s f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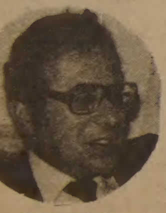
Humpty Dunpty회사에서는 세일즈매네저 Nick Bruce를 통하여 협회에 다음과 같은 Promotion을 제의해 왔고, 이를 수락하기로 하였으니, 회원제위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200g의 Potato chips에 대해서 7월19일부터 1주일간만 실시되는 이 Promotion은 5 c/s 매입에 1 c/s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며, 가격은 c/s당 $14.60이다.

법률시리즈

유서 II

협회추천변호사 Ralph M. Levine



◆랄프·로빈.

지난번에는 유서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면을 언급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유서에 관한 특수문제들을 다룸으로써 유서를 작성하는데 관한 기본개념과 알아두어야 할 문제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이글 가운데 나오는 법률용어의 정의를 알파벳순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Administrator(유산관리인)-유서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대리 재판소가 임명한 사람. (Administratrix—여성).

▲Beneficiary(수익자)-사망인의 유서나 유산으로 인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으로 혜택을 받는사람.

▲Executor(유언집행자)-사망자의 자산을 관리하도록 유서에 지명된 사람.

▲Intestate(유언없는 사망(자)-유서없는 사망 또는 사망자.

▲Personal Property(동산)-부동산과 건물이외의 모든 재산.

▲Real Property(부동산)-대지와 건물 Real Estate 또는 Realty라고도 함.

▲Residue(유산의 잔여부문)-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

▲Residuary Beneficiary(잔여유산의 수익자)-유산을 상속하고 남은 재산의 수익자.

▲Specific Bequest(동산의 유증)-유서에 의한 동산 또는 현금의 유증.

▲Specific Devise(부동산의 유증)-유서에 의한 부동산 유증.

▲Surrogate Court(대리재판소)-유언집행자와 유산관리인을 임명하고 재산관리 기간중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다루는 재판소.

▲Testate(유언을 남긴 사망(자)-유서를 남긴 사망 또는 사망자.

유서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

법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세상에는 유서대로안되고, 따라서 사망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게되는 재산이 허다하다.

이 부류에 속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재산이 바로 공동재산이다. 공동은행구좌 또는 공동소유 재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공동소유권의 법적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소유자로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부의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법률상으로 각자에게 전체재산의 완전절반의 소유권이 있다. 서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재산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공동소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살아남은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생존자에게로의 권리귀속"(right of survivorship)이다. 이것은 공유자의 권리는 사망과 동시에 정지되고, 재산에 관한 몫이 자동적으로생존자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남편이 그 주택을 부인에게 남겨주고 싶다고 별도로 유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인은 생존하는 공유자로서 남편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구좌(joint account)로 사업체를 매입했을시에는 두사람중 한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생존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된다. 그러나 사업체를 동업(partnership)으로 매입했을때에는 그렇게 안된다. 즉 동업자중 한사람이 사망하면 별도 합의사항이 없는한 동업경영은 해체된다. 동업경영이 해체되면 사망한 동업자의 몫은 사망자의 재산에 귀속되어 오직 유서에 의해서만 처리되고, 유서가 없을 때에는 유언없는 사망(intestate)의 현행분배제도에 의해서 처분된다. 온타리오주의 분배제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언급하기로 한다.

공동소유에 관한 개념을 좀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고 "공유자"(joint tenants)로서와 "공용자"(tenants in common)로서의 재산소유에 관한 법률상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다.

부부 두사람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반드시 공동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주택이 "공용자로서가 아니고 공유자로서"(as joint tenants and not as tenants in common) 부부에게 등기되었을 때에만 "생존자에게로의 권리귀속"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생존시나 유서로나 자유로이 처분할수 있는 재산의 몫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권리증서(title)에 "공유자"로 되어 있는지 "공용자"로 되어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요는 재산의 권리증서상의 문구가 문제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공용자가 아닌 공유자로서"라는 문구가 권리증서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채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공용자"로 간주된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성장하는 우리 실협
성공하는 나의 사업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이는 HOSTESS회사의 단순한 광고임

Hostess
FOOD PRODUCTS LIMITED
REXDALE, ONTARIO
M9W 5C3
(416) 675-5605

상품—12×200g 100% potato chips
가격—$14.60 c/s
특혜—10 c/s에 1 c/s Free
일반가격—$1.49
특별가격—$1.39

기간—7월19일~23일

제2회 한인실업인협회 친선골프대회

Jack Nichlaus, Looking Good

일 시 : 1982년 8월 2일(월) 오전 9시
장 소 : Richmond Hill Golf Club

◇각종공급회사 교포단체 본협회 이사님및 집행부 임원들이 기증한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바쁘신 손을 잠시 놓으시고 유쾌한 하루를 회원 여러분들과 즐기시지 않으시겠읍니까?

◇7월19일까지 신청접수 마감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초대하시고자 하는 친지분이 계시면 협회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제한된 인원, 선착순 접수)

◇현재까지 접수된 명단(Tee-off time은 내주 발표)

MEMBER(가나다순)

강경하	강화연	고광현	곽상수	김구명	김기수	김난신
김덕수	김사만	김성규	김성진	김연오	김영대	김영진
김용기	김우영	김은하	김이열	김정곤	김진형	김천만
김태신	김태진	김풍수	김현모	김형호	문옥섭	박경덕
박경태	박광철	박남희	박상남	백경락	서동춘	서인현
서준경	송완일	손정현	송종남	심태섭	양길운	원장호
유시훈	유영갑	유영갑	윤재용	이건영	이계성	이기훈
이동환	이무교	이병문	이상봉	이상철	이신넌	이양구
이영민	이종원	이춘수	이학현	이형민	이형재	장무웅
장순재	정관주	정상우	정 용	정희철	조기연	진경호
차선경	차선행	차인규	차자윤	최무원	최상수	최상철
하청남	함용식	한천석	함금상	함덕상	함효상	허종수

GUEST(가나다순)

강찬영	고광남	김남수	김만구	김인환	김상갑	김창환
문인식	박노욱	박영철	박종상	박 Jim	백이삼	서동현
신용목	심재환	안덕	엄주면	엄주익	윤여경	이광민
이상룡	이수신	이원순	이준식	이창목	장인수	정용주
정창헌	조영철	조의문	천용기	최승락	최영식	최용도
함태호	홍진표	(각종공급회사 25명정도.)				

주최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HUMPTY DUMPTY

상품—200g potato chips
가격—$14.60 c/s
특혜—5 c/s 에 1 c/s Free

기간—7월19일부터 1주간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新聞

20개 不實기업 整理
1단계 合板·機械등 내달부터

정부는 금융정상화를 위해 지금까지 미루어오던 부실기업정리작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추진될 1단계부실기업 정리에는 4개합판회사 4개기계공업업체와 40개 은행관리업체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10개업체등 모두 20여개업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별도로 건설부는 부실해외건설업체의 정비작업에 나섰다.

부실기업 정리를위해 정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및 한은등 관계당국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부실기업채권정리반을 구성, 부실기업 정리작업을 주도하자는 방안과 5개市銀및 외환은행에 경영위원회를구성, 경영위원회가 주도권을쥐고 부실채권을 정리하자는안을 각각 검토중인데 실무작업반구성문제가 매듭지어지는대로 오는 8월부터 강력한 부실기업정비작업에 들어가기로했다.

10일 관계당국에의하면 은행에서 돈을풀고있는데도 시중자금사정이 어려운것은 은행들이 부실기업의 도산을막기위해 부실채권이많은 기업위주로 대출하여 이것이 다시 은행으로 환류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부실기업이 도산하면 융산이나 공영토건사건과같은 경영책임문제가 제기되기때문에 부실기업을 정리할 엄두도 못내고 오히려 부실기업만 중점지원하고 우량기업이나 중소기업에는 대출을 꺼리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부실기업을 정리하지않고는 금융정상화나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질수없다고보고 8월부터 이를 과감하게 정리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나타날 과거의 경영책임은 불문에붙이기로 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부는 해외건설업체의 對外신용을 높이고 부실덤핑受注요인을 제거하기위해 해외건설업계에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해외건설공사수주실적이 미미한 업체, 부실업체등을 과감하게 정리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최근2년간의 수주계약및 시공실적재무구조등을 중심으로 해외건설업체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작업에 착수할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평가결과 그동안 수주실적이 전혀없거나 부실·적자공사등 문제를 계속 누적시켜온 업체는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에따라 면허를취소, 신규수주의금지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외건설업체의덤핑공사에 따른 적자누적액은 거액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원 千명 美國에 취업
단기移民형식…年內 선발

우리나라 간호원이 매년1천명정도가 미국에 취업하게 될것같다.

10일 노동부와 국제기능개발협회(이사장 金容聲)측에 따르면 최근 미 시카고의 직업알선 단체인 프로페셔널·어시스턴트·코퍼레이션(PAC)사가 한국의 국제기능개발협회측에 연내에 1천명의 간호원을 선발 송출해줄것을 요청해왔다는것이다.

국제기능개발협회측은 이같은 제의를 받고 노동부와 보사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데 간호원송출은 단기취업 또는 이민형식을 취할것으로 알려졌으며 PAC사가 한국간호원의 미국취업을 적극 알선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매년 1천여명씩이 취업될것으로 보인다.

PAC가 제의해온 취업조건은 미국내 자격시험에 합격한 간호원은 1주 4시간근무에 시간당 9달러50센트, 한국의 간호원 자격만있고 현지자격시험에 불합격하면 시간당 8달러50센트를 지급하겠다는것.

국제기능개발협회측은 미PAC사가 정식으로 수출의뢰를 하면 희망자를 공개모집, 주한미대사관이나 미8군측과 협의해 자격시험을 치른뒤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美旅客機, 주택가墜落
탑승百45명 모두숨져

◇소방관들이 9일 이륙직후 추락한 美팬암 항공사 소속 보잉727機의 잔해속을 수색하고있다. 이추락 사고로 최소한 1백51명이 사망했다. 【뉴올리안즈9日UPI聯合】

【뉴올리안즈9日AP=聯合】 1백4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美팬암항공소속 보잉727여객기가 9일하오 폭우를 뚫고 뉴올리안즈국제공항을 이륙한지 2분만에 추락, 탑승자 전원이몰사하고 지상에서 6명이사망하는등 총 1백51명이 사망했다고 공항당국이 밝혔다.

美연방항공국 (FAA)의 한 대변인은 뉴올리안즈를 떠나 라스베이가스로 가던 문제의 여객기가 이륙2분만에 뉴올리안즈국제공항으로부터 3㎞ 떨어진 케너市의 주택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히고 이로인해 지상에서 적어도 6명이 사망하고 주택 8채가 불탔다고 말했다.

팬암대변인은 사고여객기에 모두 1백45명이 타고있었다고 밝혔는데 애론·브루새드 케너시장은 탑승자 가운데 생존자는 한명도 없는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케너市 경찰당국은 사고당시 이 지역에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사고여객기가 벼락에 맞아 추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구 7만5천명의 케너市 소방당국은 이사고로 주택지역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하고 사고난지 두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지역에서 검은 연기가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고는 금년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세번째 비행기 추락사고이며 금주들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일어난 여객기 추락사고이다.

지난 6일에는 모스크바를 떠나 西아프리카로 가던 소련 아에로플로트항공소속 일류신 제트여객기가 이륙직후 추락, 탑승객 90명전원이 몰사했었다.

"現代戰은 3일로 결판"
全대통령, 前方시찰·격려

全斗煥 대통령은 10일西部및 中部전선의 육군부대를 약5시간10분동안 시찰, 軍의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하오에걸쳐 서부및 중부전선의○○부대등을 차례로 방문, 부대지휘관들로부터 부대현황등을 보고받은뒤 『軍은 북괴의 전면侵攻에 대비, 적을 초기에 즉각 격퇴시킬수있는마음의 준비와 實戰的준비를완벽하게 갖추고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앞으로 전쟁의 勝敗는 6·25때와는달라 彼我간에 무기가 현대화되어있어 敵의침공순간부터 3일까지의 전투에서 결정된다』고 지적, 『적의 침공후 3일동안의 짧은기간내에 적을격멸시켜야한다』이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최전방의 부대는 적의침투나 돌파를 허용해서는 결코안될것』이라고말하고 『과거의형식적이거나 불합리한 점을과감히 고쳐 어떠한상황이 벌어지더라도싸워서이기는부대로육성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강한훈련을통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시켜야한다』이라고 말하고 『훈련은 內實있고 알차게, 그리고 實戰的훈련이 돼야하며, 또 훈련과정에서 문제점을도출시켜 부단히 이를 개선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 것』이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軍은 우리의 地政學的위치나 남북의대치상황으로보아 안보적 차원에서는 물론, 軍·民의 화합에 기여하는데도 그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의 生存權을위해서는 국방력을계속 강화해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

全대통령은 이어 『軍은 초급지휘관들에게 패기와 소신 자신감을 갖도록하는 동시에 전술지식도심어주어야한다』고 지시하고 『군지휘관들은 앞으로 경미한 안전사고예방등에만 너무집착하지말고 부대를 대범하게지휘,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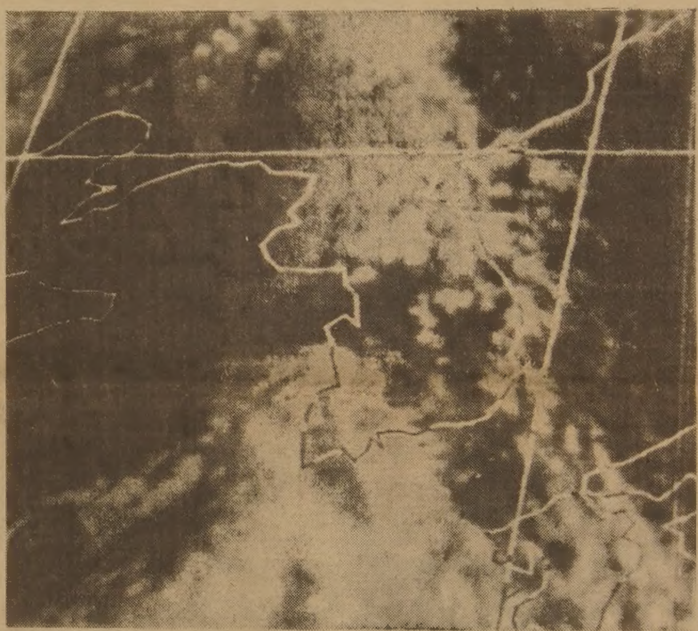
내년 大學신설 不許
27개교 申請을 반려

문교부는 10일 기존대학의 질적육성을위해 오는83학년도에는 일체의 대학교신설을 불허하기로 했다.

문교부당국자는 이날 이같은 방침에따라 이미 설립인가 신청을해온 선문대학 (京畿) 민석대학 (釜山) 大邱외국어대학 (慶山)西江여대(光州)등 27개대학의 인가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말했다.

문교부의 이같은방침은 기존 4년제 대학이 97개에 이르고 학생수가 19만7천명에 달해 인구1천명당 대학생수가 日本 21·5명 프랑스 20·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1·7명이나 되는등 그적정선을 넘어서고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도 日本42·8% 프랑스24·8% 西獨28·3%에 비해 우리나라는 59%나 되고 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광고문의처
533-2361



◇장마전선 접근 일본열도 남쪽에 있던 장마전선과 중국산둥반도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접근, 상공을 흐리게 뒤덮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성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보인다. 【10일상오3시 기상위성이 보낸 기상도】

비
12·15일 全國…13·16일 곳따라
集中豪雨 예상
장마 중순後에

본격적인 장마비는 18일이후에나 올것같다.

중앙기상대는 10일 주간예보를 통해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함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으나 18일까지는 대체로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정도라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12일과 15일, 18일에는 전국적으로 한때 비가 내리고 13일과 16일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성 비가 내리겠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집중호우도 예상되나 장마전선은 18일께나 형성될것같다고 밝혔다.

기상대는 中國산동반도 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접근, 이같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말하고 남부지방은 10일상오부터 이영향권에 접어들어 西歸浦 28·1㎜, 麗水2·2㎜, 晋州·忠武 3·1㎜를 비롯, 일부지역엔 비가 내렸으며 기압골의 중심부가 통과하는 11일에는 중부지방에도 10㎜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대는 또 이 기압골이 12일께 우리나라에 접근, 일본열도 남쪽에 자리잡고있는 장마전선과 합류하면서 활성화돼 본격 장마 전에도 전국적으로 다소의 비를 계속 내리게 할것같다고 전망했다.

社会漫評

獨·伊격돌

16일 外務委
李外務訪美日 청취

民正, 民韓, 국민 3黨은 10일 총무회담을 열고 李範錫외무장관의 美國과 日本방문결과를 듣기위해 오는16일 국회外務委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李鍾贊 民正총무는 『최근의 국제관계에 관한 보고를 받기위해 16일 外務委를 열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것은 외무위원장과 3黨간사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林鍾基 民韓총무는 국회財務, 商工, 建設委를, 李東鎭국민당총무는 財務, 商工委소집을 요청하는 한편 常委소집으로 관련문제를 다루지못할경우 임시국회를 열것을 각각 요청했으나 결론을 보지못하고 14일 총무회담을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했다.

臺灣 代表部
美, 設置허용

【臺北9日AP=聯合】 대만은곧 미국의 보스턴에 대표부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허용될것이라고 대만의 집권 國民黨기관지인 中央日報가 9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보스턴주재 대만대표부사무소가 駐美대만대사관과 대체된 『北美사무조정위원회 (CCNAA)』의 지부로개설될것이라고밝혔다.

이 신문은 보스턴주재 대만대표부사무소개설이 곧 양국정부에 의해 공식발표될것이라고 말했으나 더이상의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았다.

地平線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주라면 골동품이나 귀금속경매로 알려져 있는 크리스티경매에서 인기품목이 된다. 올들어 첫경매가 있었던 지난2월25일 런던에서는 88년묵은 라뚜르 포도주 한병이 1백55파운드, 우리 돈으로 20만원에 팔렸다. 또한 1백8년 묵은 무똥·로스칠드 포도주 한병에 1백45파운드(18만7천5백원), 22년 묵은 라투르 포도주가 역시 1백55파운드에 나갔다고한다. ▼세계적으로 포도주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포도주의 소비가 늘고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있는 포도주연구소의 존·투카소장에의하면 『독주로부터 포도주로옮아가는 문화적 변동이일고있다』는것이다. 이런변화는 여자들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하고있다. 여자들은 『칵테일시간을 포도주시간으로 바꿔놓고있다』고 그는 말한다. ▼51개국의 술소비를 조사한 유엔의 세계보건기구(WHO)도 술꾼들이 점점 독주에서 멀어져가고 있다고 보고하고있다. 지난5월에나온 보고서는 따라서 포도주 소비가 늘고있으며, 전통적으로 맥주를 토주처럼 즐기는 나라들에서도 포도주소비가 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인구 한사람앞으로 쳐서 술로의 차례는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서독으로 돼있다 한다. ▼독주라면 아무래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빚어지는 위스키를 뜻한다고 할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불경기에다 술꾼들이 포도주로 몰리는 바람에 스카치·위스키생산은 최근 내리막길을걸어왔다. 증류시설의 가동률은 1월 현재 50%에 지나지않았고, 올여름 휴업은 3개월로 잡고있다. 지난 2년동안 위스키업계는 감원선풍이 불었는데 불경기는 내년까지 갈것같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술꾼들의 주량이 줄고있다 한다. 국세청에의하면 올들어 다섯달동안 술소비량이 작년에 비해 3%가 떨어졌다 한다. 술중에서도 수입해온 독주의 소비는 뚝 떨어졌다. 브랜디가 47·6%, 위스키가 30·7%나 줄었고, 고량주도 36·3%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맥주·탁주는 1·9%, 3·8%씩, 소주는 4·5% 줄었다. ▼70년대 한때엔 위스키수입이 세계에서 첫손 꼽을만큼 뛰어올랐었다. 귀중한 달러를 술때문에 물쓰듯하는것도 우습지만, 독주소비가 뛰는 것은 하나의 위험신호라고도 할수있다. 그러나 다행히 독주소비가 줄고있다는 얘기다. 불경기 바람에 술꾼들의 주머니사정이 신통치않은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술꾼들이 정신을 차려 건강에 덜해로운 술을 찾게됐기 때문이길 바라고싶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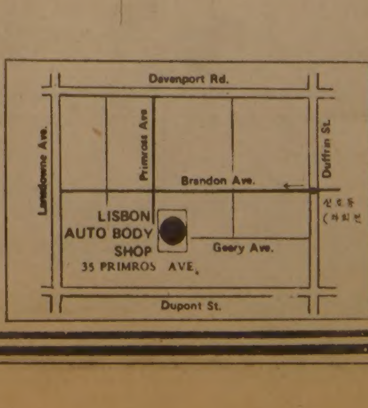
한국일보
533·2361

LISBON AUTO COLLISION INC.

여름철 교민특별 써비스

※ 7월1일부터 새로운 장비와 시설로 교민 특별봉사합니다.
※ 사고·보험관계 일체 처리
※ 1년 개런티—수리후 문제에 대한 책임보증
※ 수리중 차 무료로 대여함.
※ 철저한 신용
※ 24시간 토잉써비스 (531—9942)

35 PRIMROSE AVE. TORONTO
☎ : 533—8507, 8(B) 439—6548(R) 대표 이영두



『화려한期待』와 『힘겨운負擔』이 共存하는現場

한국일보 특집판

「重工業깃발」10년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가야하나

江山이 변한다는 10년。우리나라 중공업이 『공업입국』의 기치아래 본격적으로 개발된지가 올해로서 꼭 10년이 된다。기계、조선、전자、자동차、중전기등 중공업의 각 분야에서 그 동안 우여곡절은 많았으나 엄청난 돈과 땀을 들인끝에 이제는 건설단계는 마무리 지어놓았다。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메카인 昌原기계공업단지、玉浦의 大宇造船、蔚山의 現代重工業(造船)·現代자동차、浦項製鐵、龜尾의 전자공업단지등 손쉽게 머리에 떠오르는『중공업 한국』을 상징하는 이들 공업단지나 업체들은 관련업종들사이에서는 세계적으로 도 지명도가 높다。미국、유럽、일본등 선진국 자동차메이커들이 지배하는 세계자동차시장에서 현대의 포니승용차도 조그만 한국석을 차지、아프리카、남미등 세계의 변두리지역에 가면 가뭄에 콩나듯하지만 간혹 눈에띈다。

昌原공단에만 1兆원 이상 쏟아
造船·製鐵·電子등은 基盤 잡은셈
技術축적 없는 過剩설비가 문제

또한 미국의 테네시주 내슈빌같은 내륙지방에가도 金星、三星등 국내가전메이커들의 컬러텔리비전이 미국의 RCA、일본의 소니·파나소닉·내셔널같은 세계적 유명상표들틈에끼어 팔려가기를 기다리고있다。얼굴을 내놓은지 얼마되지않아 소비자들사이에 잘알려지지않고 있지마는 로스앤젤레스같은 대도시에서는 값싸고 질이좋아서 멕시코인、흑인들같은 비교적 소득수준이낮은 소수인종들의 인기를 얻고있다。

그런가하면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등 한동안 造船王國에서는현대、大宇造船등에 기자재를 납품하고있는 선박부품업체들이 상당수가 될뿐아니라『한국의 造船業이 신장하여 우리의 납품도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강한 연대의식을 나타내고있다。

또한 석탄 철광석등 자원의 나라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POSCO(浦項製鐵의영문상호)하면 관련업계에서는 좋은 고객으로 정평이 나있다。이러한 신망을바탕으로 우리나라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정부보증없이 자체신용만으로 1억달러의 거금을 빌어오기도했다。

중공업의 꽃이라하는 기계류제품은 대외적으로는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고있다。그러나 적어도 설비면에서는 세계 정상급이라고 할수있는 한국중공업(株)이 이번에 준공된것을 계기로 발전설비、건설중장비、공작기계、산업용기계등 대형기계설비를 수출할수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동안 귀가 따갑게 들어온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중공업은 화려한 성장을 해왔다。

지난10년사이에 GNP성장이 연평균 10%인데비해 제조공업은 29%、중공업은 32%씩이나 성장을거듭했다。수출면에서는 지난70년이후 연평균 49·5%의 신장을 보였다。생산이나 수출에서나 산업전체의 평균신장률을 훨씬 앞질러왔다。

바꿔말하면 중공업부문에 집중투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70년대는 중공업시대라 할수있다。세계 어디에 갖다놓아도 종합기계공단으로 손색이 하나도 없는 昌原기계공단의 신상을 보면 우리나라중공업의 눈부신 성장을 읽을수있다。

지난74년 바다를 메워 공단부지를 조성하기 시작한이래 지금은 한국중공업、三美종합특수강、三星중공업、曉星중공업、金星社、大宇重機、東洋기계、大韓重機、現代차량등 모두 81개업체가 공장건설을 완공、가동중에 있으며 13개업체가 공장을 건설중에 있다。한편 27개업체는 입주권만 얻어놓고 아직 착공을 미루고 있다。

지금까지 昌原공단에 투입한 자금은 모두 1조1천7백92억원、올해예상의 10분의1을 상회한다。투자규모가 큰것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규모도 크다。올해 생산목표는 1조2천억원으로 잡고있으며 수출목표를 4억5천만달러(3천3백80억원)로 잡고있다。지난5월말 현재 3천7백억원어치 생산에 1억6백만달러를 수출했다。

중공업가운데 정부의 당초계획대로 세계시장을 석권한 것은 造船공업이다。現代重工業、大宇造船、造船公社등 조선업계의 설비능력은 연 3백50만톤、현재 선박受注高는 일본에이어 세계의 2위。지난해 수출실적(통관기준)은 14억달러、올해는 22억달러로 예상하고있다。지난73년말 現代造船이 현재 조선소 소재하고있는 尾浦灣에서 한편으로는 조선소를 짓고 다른 한편으로는 25만톤급의 대형유조선을 수주받아 건조하기 시작했던 때와 비하면 今昔之感이 있다。

기계와 造船은 중공업가운데서도 전략개발업종으로 육성해왔다。고용효과가 크고 고도기술이 요구되지않는 반노동집약적인 자본재산업이므로 우리나라와같이 고용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하는 인구과잉 중진국으로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에 안성마춤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한편 전자와 자동차도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그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신장을 보였다。전자는 텔리비전、냉장고등 가전제품부문이 산업용통신기기부문보다 훨씬 비중이 커왔다。한때는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일으킨다는 엉뚱한 이유에서 컬러TV의 방영시관이 늦어지는 관계로 컬러TV의 생산이 경쟁상대국들보다 크게 늦어져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다。이러한 과문이 있었으나 연간 18억달러의 수출을 한다。

시설능력면에서 텔리비전은 三星、金星、大韓電線등이 컬러의 경우 年産 50만대의 대단위규모이며 사양화된 흑백텔리비전에서는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다。산업용 통신장비부문에서는 뒤늦게나마 ESS(순電子式교환기)를 도입、조립생산체제를 갖추어가고있다。

우리나라 중공업이 각부문에서 이처럼 화려한 외형적성장을 해왔으나 앞으로 경쟁력이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살아남기위해서는 마키팅、기술개발、재무구조개선、생산설비과잉등 중요한 난제를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업종에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공업체들은 과잉설비、재무구조의 미흡、기술의 낙후、해외마키팅의 미숙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수없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있어 심각하다。

중공업추진과정에서 정부가 규모의 경제성을 강조하고 또한 대기업들이 재계개편에서의 탈락을 우려하여 버스를 놓칠세라 무모하게 亂立을 벌였던것이 과잉투자와 재무구조의악화를 가속화했다。

또한 경공업제품에서와같이 중공업과정에서도 우선 조립공장(제품공장)을 세워놓고 추후에 부품업체를 육성하는식의 방식을 채택、국산화율이 저조、가득률이 낮은동시에 채산성도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제품인 다운스트림부터 세워놓고 부품인 업스트림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것이다。

제한된 재원에서 대형조립공장부터 지원하다보니 중소부품업체를 돌볼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중공업정책의 맹점의 본보기로 꼽히는것이 昌原工團의 韓國重工業(株)。

기계、산업기계등 7개단위공장으로 되어있는 韓國重工業(株)은 내자3천8백10억원、차관 3억9백만달러(설비자금 2억4백만달러、운전자금 1억5백만달러)등 약6천1백억원이 소요되었다。운전자금차관을 제외한 설비투자만을 따져 6천3백억원이 투입되었다。

이 대단위종합기계공장의 설비능력은 연간 1백만㎾급 원자력발전소 2기를 제작할수있는 규모다。금액으로 환산해서 연 15억달러。이공장은당초 현대양행에서 착공했던것이나 재원부족에따른 정부의 조정계획에따라 現代重工業→大宇重工業→韓電으로 주인이 네번이나 바뀌는 과란을겪어왔다。이러한 진통은 工期를 늦추게되고 주인없는 경영은 부실을 낳게되어 건설과정에서부터 비능률의 표본이 되었다。결국 韓電이 떠맡게된것도 불합리하다。韓電은 발전소의 수요자인데 韓國重工業을 인수함으로써 발전소의 공급자를 겸하게되었다。韓電과 韓國重工業이 독립채산제를 한다지만 韓國重工業이 부실화하면 모기업인 韓電에 주름이 가고 韓電은 경영적자를 모면하기위해 전력요금에 코스트를 전가시킨것이 명약하고 보면 결국 국민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부담을 떠맡게된다。더우기 韓電자체도 방만한 경영으로 옛날부터 公企業의 비능률을 해소해야하는 과제를 지녀왔다。韓國重工業은 한때 주인을 물색하는 사이에 기발주하여 도착한 기자재를 방치하여『세계에서 제일비싼 창고』라는 오명을 갖게되었다。

완공을본 오늘에도 韓國重工業(株)의 고민은 생산물량 확보다。상공부 당국자에 따르면 올해 매출목표는 3천3백억원으로 잡고있고 84년이면 損益분기점에 이를수 있다고 한다。

이 당국자의 말대로 이렇게 빠른 시일이내에 損益분기점에 도달하면 더 바랄것이 없겠다。

韓國重工業(株)이 현재 수주하고있는것은 蔚山화력 1·2호기、高亭火力、桂馬원자력 7·8호기및 9·10호기。해외 수주로는 말레이지아의 퍼크시멘트와 요르단의 아카바발전소。

어차피 韓電의 발주 물량으로 채워갈수밖에 없다。올해 매출액목표 3천3백억원가운데 국내수주가 85%、해외수주가 15%다。

단기적으로 국내수주에 의해 물량을 확보한다해도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없다。

韓國重工業(株)의 주종제품인 원자력발전설비(NUCLEAK STEAM SUPPLY SYSTEM)는 현재 우리기술로는 조립단계에 불과하다。국산화율은 10%미만이다。더욱 장래를 불투명하게하는것은 원자력발전설비의 시장성 그 자체다。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활발히 건설하고있는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臺灣、아르헨티나등 3개국정도다。원자력발전설비는 안전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못하고있다。미국에서는 드리마일 아일런드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유출사고이후 신규발주가 일체중단되었을뿐만아니라 건설중에있는것도 일부는 공사를중단하고있는실정이다。유럽지역에서도 西獨 스웨덴같은곳에서는 80년대기간중 신규발주가 없을 전망이다。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짓고있는 프랑스 일본에서도 당초건설계획을 대폭축소、조정하고있다。웨스팅하우스、GE、프랑스의 프라마톰、스위스의 BBC、영국의 GEC같은 세계적인 대메이커들이 정부의 힘을 등에업고 수주를찾아 세계구석구석을 누비는것도 이때문이다。

韓國重工業은 막대한 외채로 하루의 이자만도 1억원이라고한다。금융비용의 과다로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나라 중공업업체의 자기자본비율은 지난80년현재 정밀기계부문을 제외하고는 20%내외。부채비율도 3백60%(일반기계)에서 4백65%(전기기계)로 불량하다。

중공업의 난립은 문제가되었던자동차、엔진、중전기부문에서 정부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어느정도 교통정리가 된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중공업의 死活문제가 걸려있는 기술개발과 해외세일즈는 아직도 零點지대에 머물고있다。

기술료의 高價、선진국의 기술전수의 기피등으로 기술개발이 벽에 부닥치고있고 해외 세일즈는 수출금융의 제약과 세일즈기술의 미성숙으로 역시 유치단계에 머물고있다。

우리나라중공업은 이제 外華에서 內實에다 역점을 두어야할 전환기에 서있다고 하겠다。【李梓昇기자】

◇드높은 跳躍의 망치소리 6년여의 產苦끝에종합준공된 韓國重工業은 방대한 시설과 최신의 설비를 갖춘채 망치소리드높게 힘찬 전진을 다지고있다。

原子爐까지 우리손으로 척척

「韓重」昌原공장을 가다

『찌이익 찌이익』『쉬익 쿵』―。서울운동장의 4배가 넘는 공장안이 온통 쇠를 깎고 구멍을 뚫는 쇳소리로 가득했다。한편에선 귀청을 찢는 호루루기 신호와함께 40m위 천장에 매달린 4백톤짜리 육중한 기중기가 탱크소리를 내며 레일을 굴러다닌다。사람은 많지않아도 장내분위기는 부산하기만 하다。

韓國重工業(사장 朴正基)昌原공장의 重機械공장。입구에 들어서 한내를 눈으로 한바퀴 둘러본데도 한참이 걸린다。공장면적만 폭1백70m 길이 3백80m로 1만8천평。기둥도 없는 4각형건물이 40m높이로 웅장하게 서있고 그안에 각종 기계설비가 조화있게 꽉 들어찼다。중기계공장은 韓重 昌原공장의핵심공장으로 발전소의 주기기인 터빈 발전기를 비롯하여 제철제강설비、化工설비등 각종 대형플랜트의 주기가를 생산하는곳。

한쪽에선 50만㎾짜리 三千浦화력발전소 2호기의 저압터빈、다른쪽에선 20만㎾용 西海화력 2호기의 저압터빈을 만드느라 직경6m에 길이7m의 쇳덩이를 깎고있다。하나같이 덩치가 큰、제작물인데도 부분적으로는 아주 정밀을 요하는것들이다。그러다보니 공장안의 기계들도 모두가 최신 정밀제품들이다。아시아에 1대밖에 없다는 플라노밀러(쇠를깎거나 구멍을뚫는기계)를 비롯해서 4軸橫削盤、수직선반、수평선반、수평보링바機、기아비削機、롤研削盤、深穴보링기등 어느것 할것없이 컴퓨터 조작시설이 붙어있다。제작물을 이리저리 옮기는데 쓰는 기중기만도 30톤에서 4백톤짜리까지 10개가 설치되어있다。西獨발드리치코부르그社가 만든 플라노밀러는 값이 자그마치 3백83만달러。직경12m길이50m에 무게가 5백톤이 나나가는 철탑까지 올려놓고 편면을 깎거나 구멍을 뚫을수 있다는데 기관차의경우 쇠붙이를 통째로 여기에 올려놓고 깎고 다듬은뒤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수도 있단다。

플라노밀러는 쇠를 깎는데 컴퓨터가 달려있어 1천분의1밀리까지 정확하게 깎아낼수있다。

생산1과장 權泰一씨(36)는『기계를 설치할때부터 1년이상만지다보니 이젠 성능을 완전히파악해서 어떤 기계도 깎아낼수있으며 특히 정밀도 높은 발전설비를 만들다보니설비제작이라면 어떤것도 해낼수있게됐다』고 자신감을털어놓았다。權과장은『대부분 작업이 手作業아닌 컴퓨터에의한 프로그램작업이어서 쉽기는하지만 제작물이 워낙 대형인데다 정확도를 요구하고있기때문에 실수했을때의 피해를 생각해서 신경은 더 쓰게된다』고 최신설비사용 뒤에숨은 고충을 설명한다。

亞洲 한대뿐인 플라노밀러、誤差 千分의1mm 자랑
매년 일감12억弗 확보해야…시장개척에 死活걸려

昌原공장엔 중기계공장 말고도 6개의공장이 더있다。크기도 최하 서울운동장 2배에서 최고8배짜리까지 있다。쇠를 녹여 소재를공급하는 鑄造공장、주물을 단련시켜 질좋은 쇠를 만드는 鍛造공장、이들 소재를 원료로 중기계의부품을 만드는 기계공장、보일러공장、重製罐공장、중장비공장등이 그것이다。

단위공장으로 규모와 시설면에서 세계 최대 최신 수준을 자랑하는 이들 7개공장이 모여 종합기계공장을 형성하고 있는것이다。기초소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작업에의해생산이 가능한 조립라인이 갖춰져있다。

연간12만6천톤의 쇠붙이 용해능력을 갖고있는 주조공장에선스테인리스鋼 크롬鋼 망간鋼 니켈鋼등 소재를만들어내며、단조공장에선 5만톤의 鋼塊(단조와함께 길이 20m짜리까지 수직열처리할수있는 시설과 X레이검사기능을 갖추고 있다。단조공장에 설치되어있는 1만톤짜리 프레스는 세계에 9대밖에 없는것으로 값이 무려 1천1백70만달러。西獨데마그社제품인 이압축기는 지하6.2m 지상20m크기에 수압식으로 직경1.2m짜리 실린더 3개로 내리 누르면 어른(몸무게60㎏) 20만명이 올라서는 힘을발휘하게된다。

기계공장에선 터빈브레이드 스테이터바등 발전설비에 들어가는 1천여종의 부품을 생산하고있으며 보일러공장에선 연간 정부종합청사 크기만한 보일러 3기를 제작할수있는 능력을 보유하고있다。

3만1천5백평의 바다같은 중장비공장에선 불도저 백스커베이터 로더 포크리프트등 건설용 중장비를 연간 5천대씩 생산하게된다。

그러나 昌原공장 준공과함께 더욱 돋보이는것은 重製罐공장。이곳은 원자로등 원자력발전소 주기기를 제작하는공장이다。국내에 현재 8호기까지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지만 여기에 쓰여진 모든자재나 주기기 부품은 모두외국제였다。국내에선 이를 들여다 겨우설치하는게 고작이었는데 이제 우리손으로 제작한단계에 들어선것이다。韓重의 완공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있어 설계나 핵연료장치계통을 뺀 압력용기등 주요부품제작은 우리기술로 얼마든지 해낼수있게됐다。

현재 중제관공장에선 원자력7·8호기의 증기발생기 가압기 고압압력용기 터빈 발전기등을 제작중이며 곧 9·10호기의 원자로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朴昌浩(37)생산부장은『5년전까지도 엄두를 못내던 원자로를 이젠 제작할수 있으며 美國기계기술협회로부터 품질보증인증을 받아놓았다』면서『더이상의기술도 있지만 아직도 외국설계회사와의 계약관계나몬신때문에 활용치못하고 있는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기계공업의 첨단기술을 요한다는 발전설비제작및 조립에있어 국산화율은 현재 원자력분야가 37%、화력이 57%、수력이 77%선인데 원자력도 90년대 초반까지는 1백% 국산화하겠다는게 韓重측의 다짐이다。

韓重은 우여곡절속에 5년8개월만에 종합준공됐다。76년11월 現代洋行 鄭仁永사장에 의해 착공된 이래 제2차 오일쇼크、중화학과잉투자에 따른 투자조정등 국내외의 거센 바람 속에서 現代重工業→大宇그룹→정부公社化등 4차례나 주인이 바뀌는 수난을 겪었다。3천8백10억원의 자금、2백50만명의 연인원、19만4백평의 해안매립、62만㎥의 콘크리트、8만4천백14톤의 철강을 투입해서 완공된 韓重은 이제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요람이요、기계생산의 종합백화점이자 공장을 생산하는 기계공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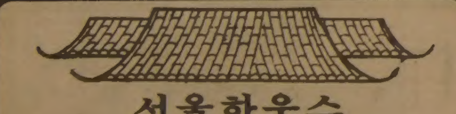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다。鄭東秀공장장은『능력은 갖췄으나 일감이 없다』고 안타까와 했다。현재 공장전체의 평균 가동률은 40~45%선。최소한의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75~80%의 가동률은 유지해야 하며 그러자면 연간 11억~12억달러 정도의 일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韓重이 안고 있는 부채는 외국차관 1천7백24억원과 국내 차입금 1천64억원등 2천7백88억원。

올해 갚아야할 원리금상환부만도8백15억원으로 하루에 2억원이상씩을 갚아야할 입장이다。지난해 2천47억원어치를 팔아 2백8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3천3백4억원의 매상에 1백94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韓重은 오는84년까지는 어떤일이 있어도 흑자경영을 이뤄놓겠다는 다짐이지만 결과는 장담할수없는실정이다。현재의 韓重시설능력으로는 40%만 가동하면 국내수요는 모두 충당할수있다。결국은 나머지 60%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외국에 내다파느냐는데 있다。韓重은 올들어 5월말까지 국내외에서 1천1백30억원의 공사계약을 맺고 현재 湖南火力발전소 연료전환공사등 국내공사 1천9백억원과 말레이지아 시멘트공장건설등 2천5백억원어치 해외공사계약을 추진중이다。또한 휴스턴 런던등 9개 해외지사망을 펴놓고 있지만 아직 대외적인 신인도와 판매조직망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을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따라서 우선 국내적으로라도 발전설비및 건설중장비생산의 일원화와함께 5백억원의 公자용을 정부당국에 요청하고있다。【昌原=崔相泰기자】

取材팀
◇經濟部
朴炳潤 부장대우
崔相泰 차장
趙源永 차장대우
申相碩 기자
朴 武 기자
◇特輯部
李梓昇부장대우
◇寫眞部
金海雲 차장
金龍逸 기자

구독신청
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냉면 짜장면·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 532-0602
※일요일은 휴업
김 신우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자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291-9590
ZAIDI& ASSOCIATES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성희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國際焦點

美의 레바논 派兵 國防省서도 反論

——막바지段階… 條件놓고 심각한 爭點으로

레이건 대통령의 레바논에대한 파병결정이 발표된 후 미국내의 반향은 점차 우려의 기운을 짙게 띠고 있다.

의회내의 반대여론은 뒤로하고라도 파병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국방성측마저 미군의 피해를 막을수있는 뚜렷한 보장이 없는한 미군의 레바논사태 직접개입이란 무모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파병문제는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는 파병조건에 초점이 쏠리고 있는것같다.

우려의 핵심은 물론 미군이 입을지도 모를 물리적인 피해, 그다음은 직접개입이 가져올 국제적인영향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군파병은 예기됐던 소련 브레즈네프 파병경고서한 못지않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 같다.

레이건 대통령의 파병결정은 발표 그대로 원칙적인 것이고 파병이 곧 실행단계에 옮겨지는 상태는 아직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11일까지 최종조건의 협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주변의 의견으로는 이원칙적인 결정이 후퇴할것같은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고있다.

따라서 우려의 반응을 보인 대부분의 의견들도 이런 파병을 전제로한것이 많고 백악관의 파병발표이후 신문이나 TV에 나타난 의견을 종합해 보아도 파병자체보다 여하한 조건하에서 파병되는가에 더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느낌이다.

닉슨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윌리엄·로저즈는『모든 필요한 안전장치, 철수시기등 적절한조건이 선행된다면 자신은 레이건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고말했다. 前상원의원 제이컵·재비츠는 이스라엘이 西베이루트를 공격하는일이 없도록하자면 미국이 이지역 평화유지군에 참가해야하며 이스라엘과 PLO와의 충격을 피할수있는데도 그대로 놓아둔다는것은 세계와 이지역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터 대통령의안보담당 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는 파병이 비록 일시적인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체적인 구상아래 이뤄져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5년간 팔레스타인자치권을 인정한 캠프데이비드 방식을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진스키는 이잠정적인 5년간의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문제 해결이 시기적 정치적 풍토조성에신뢰적인 도움을 줄것이며 이런방식을 따르지않는한 자신은 미군의 사명과 미국의 이익에 손상을 주는 파병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역시 대통령안보담당보좌관을 지낸 맥조지·번디도 적절한조건이 선행된다면 파병을 지지한다면서선행조건이란 이번파병에 레바논정부의 분명한 요청이 있어야하고 파병으로써 양측의 전투종식뿐아니라 철수까지의 확실한 전망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맥나마라 前국방장관도 이문제는 전적으로하비브특사의 협상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존슨시절의 법무장관 램지·클라크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강대국이 분쟁에 직접 뛰어드는것은 위험하며 미국이 더이상 세계경찰역할은 하지말아야 될것이라고 말했다.

安全·철수時期 막연 이제는 撤回도 못해

그러나 이런 표면상의이유보다도 레이건행정부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파병을 결정하게된 이유가 따로있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것은 대개 4가지로 분류할 수있는데 첫째이스라엘침공으로 야기된 레바논 PLO군및 민간인의대량살상이 결코 앞으로 美은 결과를 가져오지않으리라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이사태는 막아야한다는 강력한 인식을갖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이어느 다른나라도 신뢰하지않기때문에 이스라엘을 철수시키기위해서는 미국이나서야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둘째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PLO를 철저하게 분쇄하도록 내버려두면 결국 팔레스타인 세력이 더격렬해지는 사태를 가져오며 이것이 드디어는 親미국의 온건파 아랍국가들을 위협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인식을 사우디등 주요 아랍국가와함께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PLO에 절망적인현상황의 방치가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있는 아랍국가들에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되며 더 나아가 PLO로 하여금 과격한 이란과 손잡으려 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했기때문이다.

세째로 이스라엘은 젖혀놓고라도 레바논사태에 개입해있는 당사자들이 상호불신때문에 전쟁종식을 위해 강대국들의 보호같은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주요한 배경중의하나이다.

즉 서로가 휴전에 동의해 철수한다해도 PLO와 같은 경우 약속이 깨진다면 언제 어떤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가장 약한 입장에 있으며 이같이 원만한 철수가 불가능해지는사태가되면 해결방법은 요원해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군과 프란스군말고 이런 휴전감시기능을 할수있는 군대란 결국 유엔군이나 레바논군인데 레바논군은 이런역할을 수행할 능력이없고 유엔군이란 편성에 시간이 걸릴뿐아니라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있고 또 쉽사리 이스라엘측이 동의하지않을 우려가 있다는점에서 결국 미국이 직접 개입을 결심하게된것 같다는것이다.

이같은 전망을 돌아본다면 결국 미국은 어느 형태로든지 지금의 레바논사태가 계속되는것은 자신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강력한 인식을 하고있으며 여기서 위험을 무릅쓴 파병결정까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 파병으로 국내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 비록 적은 협상의 결과에 따라 파병의 최종 실행여부가 달려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러한 배경들 때문에 원칙적인 파병결정에서 후퇴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있다.

미국과 이번 문제협상에 참여한 사우디나 프랑스는 요르단 西岸과 가자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 자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물론 이에 반대하고있다.

특히 사우디는 이집트와 함께 미국이 팔레스타인문제의 영구적 해결을위해 이같은 살 터전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와주기를 희망하고있다.

레이건 행정부도 철수만이 문제해결은 아니라고 보고있으나 팔레스타인문제의 궁극적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프랑스나 사우디와 견해차를 갖고있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10일=李文熙특파원】

◇왜 이러는지… 어린눈빛에 담긴 공포와 의문。레바논 어린이 하나가 포격으로 뚫려버린 자기집의 발코니에서 폐허가된 이웃집들을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고있다。유태인과 아랍인 어른들이 싸우는 이유를 아직 알리없는 어린이는 무서워서 손을 난간에서 뗄 엄두도 못낸다。【베이루트10日=AP】

核폭탄제조 레이저 美, 佛西獨수출승인

【워싱턴9日UPI聯=聯合】레이건행정부는 핵폭탄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과초고급플루토늄을 보다 값싸고 쉽게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레이저(빛의 증폭장치)의 對서독, 對프랑스연구용 수출을 비밀리에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紙가 9일 보도했다.

포스트紙는 제임즈·에드워즈 에너지장관이 美원자력법의 조건에 따라 이른바 튜너블·다이오우드·레이저라는특수레이저를 동위원소분리 연구용으로 서독과 프랑스에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동위원소분리는 美정부가 집중적인 개발계획의 목표로 삼고 있는 정교한 과정으로서 이것에 의해 핵폭탄제조에 알맞는 고농축우라늄과초고급플루토늄의 생산을 보다 단순화할 수 있다.

터키軍 3만여兵力 이라크國境에 集結

이란 進擊대비

【베이루트9日AP=聯合】터키는 이란軍이 이라크영내로 진격할것에 대비, 3만5천명의 병력을 시리아및 이라크국경에 집결시켰다고 레바논좌익 아스·사피르지가 9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서방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 터키의 이같은 군사적 움직임이 터키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등 3國간에 맺어진 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문은 또 터키軍의일부부대가 이미 이라크 영내로 진입했다고 보도하고 이같은 움직임은 이란이 사담·후세인 정권을전복시키기위해 이란軍을 이라크영내로 진격시키는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강력히 지지해왔었다.

해설

온건 아랍圈의 對이란恐怖 表出
터키의 故土회복 野心 가능성도

이란군의 이라크領진입을 대비, 터키군이 증원됐다는 보도는 완충체제의 동요를 두려워하는 온건 아랍국가들의 우려가 행동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끌고있다.

이란-이라크전쟁에서 이라크가 패배하면 팔레비정권을 무너뜨린 이란회교혁명의 열풍이 인접국가로 확산, 결국엔 자신들의 통치체제를 흔들어 놓을 위험때문에 아랍온건국가들은 이란군의 이라크領진입을 크게염려해왔다.

20억달러의 對이라크 전쟁복구비 원조제의, 휴전중재의등 여러측면에서 그들은 전쟁을 종식시킬 노력을 계속해왔으나 이란은 이라크후세인정권의 붕괴가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구나 최근엔 이라크領진입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있던 터였다.

문제는 터키군이 앞장을서게 됐다는 사실에있다. 터키군부내에서는 1차대전 이후 이라크에 할양된 오토만터키帝國의 옛 失地를찾자는목소리가 커지고있으므로 이란군진입을 막는다는 명분의밑바닥에는 失地회복의 야심이 깔려있을지도 모를일이다.

중동의 정세는 레바논전쟁과함께 앞날을 예측할수가없게됐다. 【謙】

팔 撤收협상突破口 陸路경유 討議시작

【베이루트·런던9日UPI聯=聯合】레바논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레바논과 미국의 협상담당자들은 9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주장해온 육로를통한 베이루트 철수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시작함으로써 PLO철수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마련됐으며 파루크·카두미 PLO정치국장(外相格)은 철수협상이 24시간내 타결될것이라고 말했다.

말聯長官등 殺人음모 혐의로 拘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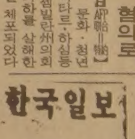
【콸라룸푸르10日AP聯=聯合】말레이지아현직 문화·청년·체육성장관 목타르·하심등 5명은 네그리셈빌란州의회장 모하메드·타하를 살해한 사건과관련, 10일 체포되었다고 말레이지아경찰이 밝혔다.

타하의장은 총선거 실시되기 8일전인 지난4월14일콸라룸푸르로부터 1백㎞떨어진 제멘체마을의 자택앞에서 총격으로 피살되었는데 목타르·하심장관이 이살인사건을 음모한혐의를 받고있다.

人事異動

◇체신부 ▲부천우체국장 郭鍾大 ▲동대문〃 鄭然澤 ▲서울국제〃 李昌國 ▲수원〃 朱鏞歡 ▲성남〃 金允植 ▲평택〃 趙允璋 ▲공주〃 劉南龍 ▲우정연구소 101분소장 白南鉉 ▲안양우체국장 姜喆植 ▲우정연구소연구조사과장 田英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조사과장 田正植 ▲청주우체국장 朴燕喆 ▲천안〃 崔慶會

◇철도청 ▲서기관(12일자) ▲감사담당관 姜太璋 ▲공안〃 金智泰 ▲총무과장 李光彦 ▲운수국영업관리〃 李丙周(12일자)



◇유원지開場 75년…服裝쇼

빈에서 가장 크고 인기있는 湖畔유원지 겐제호이펠이 지난주 개장 75주년을 맞아 그동안 피서객들이 즐겨입었던 일광욕복장과 수영복을 모델들에게 입혀 선보이고 있다.【빈8日AP=聯合】

메아리

낚시 自制論

통금해제후 달라진것 가운데 여가생활의 풍속도 잡을수있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레저는 낚시와 등산일 것이다. 통금이없어지자 낚시와 등산은「24시간 시대」로 들어섰다. 새벽 출조가 심야로 당겨지고 밤등산까지 유행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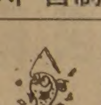
주말과 휴일이면 낚시터는 원색으로 변해버린다.「물 절반, 사람 절반」이란 표현이 실감난다. 전국의 낚시인구는 어림잡아 3백만명이 넘는다. 레저인구의 휴일 대이동을 짐작해 볼만하다.

낚시는 한번 탐닉하면 그 매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두낚시꾼은 몇년전 3백60시간 계속 바다에서 낚시를한 기록을 세웠다. 이쯤되면 낚시의재미가 얼마나 큰가 상상이 간다.

심한 가뭄으로 전국 낚시터가 지금 몸살을 앓는다. 논물을 대려고 물을퍼 바닥이 드러날지경이다. 물고기의 수역이 바짝 줄어 들었다. 가뭄과싸우며 땀흘리는 농민과 메마른 낚시터를 보기 민망해 낚시自制論이 나온는판이다. 당분간 일체금지까지는 좀 지나치다해도 자제의뜻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낚시꾼을「釣士」라고도 부른다. 고기를 낚는 선비가되려면 먼저「낚시의 道」를 터득해야 한다. 道樂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때「가뭄속의 자제」는 얼마든지 수긍이 간다. 낚시회도 너무 장사속만 따지고 있을때가 아님을 안다.

「고기를 잡되 그물질은 안하고 나는 새는 쏘아도 잠자는 새는 안쏜다」는 말이 논어에 나온다. 道樂의 참뜻이 담겨있다. 낚시터에 다시 물이 가득 차기를 강태공다운 인내로 기다려야 하겠다. 바다나 댐으로 우선 낚시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새겨들을만 하다.



한편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 탓으로 낚시터가 날로 황폐해 가는 현상이 보인다. 큰고기만노리는 릴의 횡포, 稚魚도 안가리는 마구잡이, 게다가 쓰레기 공해가 겹쳐「治水」나 자연보호 마저 어려워질지 모르겠다.

낚시터는 고요함이 생명이라고 한다. 그 주변에 텐트까지 치고 북적대고 어지럽히면 자연은 이그러지고 만다. 소련의 작가 체홉은 낚시를너무 즐겨 자기 아내를「물고기」라고 놀렸다. 낚시터를 아내나 연인처럼 사랑할때 자연은 옳게 보호·보존될것이다.

아침에

曺淳煥 〈본사논설위원〉

美國病「미·제너레이션」

「레바논派兵」으로 軌道修正 발버둥

지난봄 워싱턴서 열린 한 세미나의 쉬는시간에 옆에앉았던 미국학자와 나눈 대화다. 먼저 말문을 열었다.

『당신집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까?』

『그야 물론 一家의 主人인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요』

『당신부인은 어떤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내집사람은 파티에 어떤옷을 입고갈것인가, 어떤빛깔 어떤형의 새차를 살것인가, 또 얼마만큼 큰집으로 이사를 갈것인가등을 결정하지요』

『그렇다면 一家의 主人으로 당신이 내리는 중요한 결정은 뭐가 되지요?』

『레이건 대통령이 再選되어야할것인가 미국의 국방비가 증가되어야 하는가등 모두 중요한것들뿐이지요』

이 미국교수는 미국가정생활면의 女性의 위력과 男性의 無力함을 풍자한것이다. 미국에서 물품구입은 70%가 女性들에의해 결정된다고한다.

하지만 미국교수는 미국정치와 정책결정이 男性들주변에 가까이있다는것을 이대화를통해 또한 풍자하고 있다.

熱올린 政治참여

기자는 지난5년5개월동안 워싱턴특파원으로 일하면서 택시를 탈때마다 정치얘기를 화제에 올렸다.

비록 투표율이 내려가고있으나 미국사람들이 정치에대해 갖는 관심은 매우크다. 택시운전사들은 음악보다는 뉴스를 라디오로 듣는경우가 많다.

『공화당은 부자들의 이익을 위하는 정당이어서 글렀다』『민주당은 의견이 분열되고 싸움만 해서 싫증이 난다』든가『레이건은 포용력있는 인물이다』등 그들 나름대로 뚜렷한 주견을 갖고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말하는 택시운전사도『정치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再選이나 노리고 자기호주머니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다 부패하고 무능합니다』라고 신랄하게 내뱉는다. 그들은 결코 정치에 무관심하지않다.

미국사람들은 그들 손으로 직접 뽑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좋든 궂든 관심을 쏟는다.

白堊館대변인은 곧잘 대통령의 對蘇정책연설에 관해 국민들이 2백48통의 전화를 해주었는데 그중 1백95통이 지지 전화였다고 기자들에게 밝힌다. 白堊館대변인은 土, 日요일을 빼고는 매일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며 까다로운 질문을 받는다.

전화만이 아니다. 미국사람들은 대통령·상원의원·하원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예컨대 어떤 州의 상원의원이 연방의회서 州民의 여론과는 어긋나는 발언을 한다면 항의편지가 의사당사무실에 쇄도한다. 물론 그 상원의원이 그 편지들을 모두 읽는것도 아니고 일일이 답장을 써보내지도 않는다. 그걸 아는 州民들이지만 열심히 편지를 보낸다. 선거민의 의향을 반영하지 않는한 再選될 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議員들이 적어도 州民의 편지를 贊否에따라 분류하여 선거민들의 여론의 방향을 알려고 한다는 것을 편지쓰는 사람들은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사람들은 이런방법으로 그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한다. 그들이 뽑은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州의회의원들에 어떻게든 영향을주려고애쓴다. 미국사람들은 정부를 때로는 신랄히 비판하면서도「내정부」,「우리정부」라는 생각은 버리지않는다.

이처럼「우리정부」라는 생각을 가져온 미국사람들도 70년대에는 自己本位로 개개인의 이익에 너무 집착해왔다는것을 반성하고 있는것같다.

70년대의 自己中心, 自己本位로흘러온 世情을 잘표현하는것이「미(me)·제너레이션(自己本位世代)」이란말이다.「미·제너레이션」은 베트남전쟁후, 워터게이트사건후 미국사회에 번져갔다.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베트남전쟁과정에서 미국은 道義면에서 타락했다고 느꼈다. 그들이 뽑은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물러서자 국민들은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自己本位의 풍조가 팽배해간것이다.

모두가 失格이다

미국사람들의 열등감은 이런 無力感에서『미국정치의 理想과 制度는 다른나라보다 나은것이 못된다』는 懷疑속에 잠기게 되었다. 國內政治優先과 동굴로 후퇴하는 對外정책이 뒤따랐다.

70년대초 닉슨 대통령의 주한미제7사단 철수나,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제2사단 철수계획이 그런「미·제너레이션」의 맥락에서 나왔다. 높은인플레이션, 높은失業率, 높은利子率, 무역적자, 달러貨의 폭락, 마약복용, 性의문란등 이른바「미국病」이 또한「미·제너레이션」을 만연케했다.

79년 후반기에 일어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侵攻과 이란의 미인질 억류사건이 自己이익만을 생각하던 미국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했다.

80년대에 미국사람들은「미·제너레이션」에서 벗어날수 있을까. 미국사람들은 80년의 대통령선거후보자들을「모두失格」이라고 보았으나 레이건에 표를 던졌다.

稅金삭감, 정부支出삭감, 국방비증대를 내세워 미국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레이건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그들의 지도자로 뽑았다. 50년대 60년대「세계경찰」로 세계정치를 이끌어간 지난날의 좋았던 미국에 향수를 가진 레이건에 미국사람들은 그 回歸가 어렵다는것을 알면서도 역시 가냘픈 기대를 걸지않을수없었다.

수일전 레이건은 레바논정부가 원하면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게릴라의 레바논 철수를돕고 레바논정부의 權能을 회복하기위해 美해병대를 派兵하겠다고 밝혔다.

無力感탈피 布石

레이건의 레바논派兵방침은 협소한 自己本位의 생각에서 미국사람들을벗어나게해서 미국을 세계指導國으로 다시 발돋움하려는데서 나온것같다. 凡庸의 時代에서 軌道修正을 피했다고할까.

레이건은 理想의 인물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을 꼽는다. 레이건은 존경하는 아이젠하워를 평화롭게 이끌어온 시간을 보냈으나 미국은 세계를 평화롭게 이끌어온 레이건은 존경한다.

1958년7월『레바논 공산주의 쿠데타 임박』이란 보고를받자 아이젠하워는 즉각 제6함대의 군함 70척을 中東으로 향하게하고 2천명의 해병대를 파견했다. 2천명의 미해병대는 아무 저항을 받지않고 레바논에 상륙하여 쿠데타 움직임을 분쇄했다.

미국식평화가 세계평화로 강요된 50년대 미국의 黃金時代를 레이건이 그대로 꿈꾸고있는것은 아니다. 多國籍평화군의 一員이란 현실을 레이건은 밟고있다.

레이건의 레바논派兵제의에 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이 경고한것은 비상한 관심을 끈다.

세계의 다수전략가들은 세계제3차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中東(레바논)에서 일어날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소련은 이번 레바논사태가 벌어진 이래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그렇더라도 시리아와 PLO는 소련 中東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런 잠재위기를 의식하면서 레이건이 미국의 레바논派兵원칙을 들고나온 것은 불안한 中東에 평화를 심고 70년대 이래 떨어진 미국의 국제위신을 되찾으려는데 있다. 레이건의 指導者像은 국내외에 굳히며 미국사람들을 無力感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高次元의 布石이 깔려 있다. 국민의 신뢰와 민심을 얻는 것은 경제회복과도 연결된다.

자궁내避姙 赤信號

★골반염발생確率훨씬높아

자궁내피임기구를 사용하는여성이 콘돔을 이용하는경우보다 골반염이 발생할 확률이 70%정도 더 높으며 피임기구를 사용치않는 경우보다는 최대4배까지 발생확률이 커진다고 미국의 한 의사가 미의학협회지 최신호에발표.

이같은 연구결과를밝힌 조셉·클래건박사는 또『차단피임법』을 택하는경우는 經口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골반염을 일으킬 확률이 자궁내 피임기구사용시보다 70%정도 감소된다고.

골반염의 주요원인은 임질인경우가 많지만 자궁내피임기구도 이질환의 한 원인이 분명한것으로 판명됐다고 클래건박사는 주장.【시카고(美일리노이州)=UPI】

海外토픽

日原爆그림 展示

★美서 生存者들그린50點

미국의 한 사립박물관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발의참상을 직접 목격한 생존자들이 그당시공포의 장면을 회상, 순수 화폭으로 옮긴 50점의 그림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시카고평화박물관의 마크·로고빈관장이 입수한 이그림들은 오는8월6일부터 4개월동안 이박물관에 전시되어 세계최초의 핵무기사용으로 20만명의 인명피해를낸 37년전의 그날을 되새기게 한다는것.【히로시마=AP】

제2회 전캐나다 교민체육대회

신록이 무르익어 가는 이른 여름, 귀하의 가정의 평강과 하시는 사업위에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체육대회에 이어 금년에도 8·15광복절 기념식과 제2회 전교민 체육대회를 개최코저하오니 많은 단체와 개인의 출전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8월14일(토요일) 오전8시30분
장　　소 : Centennial Park Main Stadium, Centennial Park Dr. Etobicoke, Ontario
참가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또는 한국인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마감 : 1982년 7월31일까지
구비서류 : 소정신청서 1통
접 수 처 : 1. 재캐나다 체육회 사무실 ☎ : 533－9336
454A 3rd Fl. Bloor St. West. Toronto. Ont.
2. 서울여행사 ☎ : 535－6004
631 Bloor St. West. Tor. Ont.
3. 무나미트로피 ☎ :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Scarborough. Ont.
4. Brandon Sports ☎ : 598－3732 337 Bloor St. West, Toront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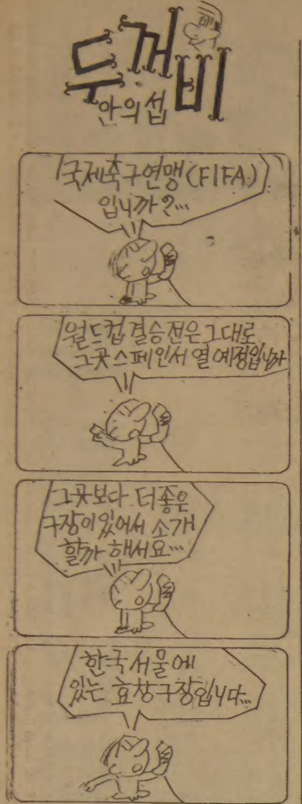
※참고 : 주장회의를 8월7일(금요일)5시 본회 사무실에서 갖겠읍니다.

주최 :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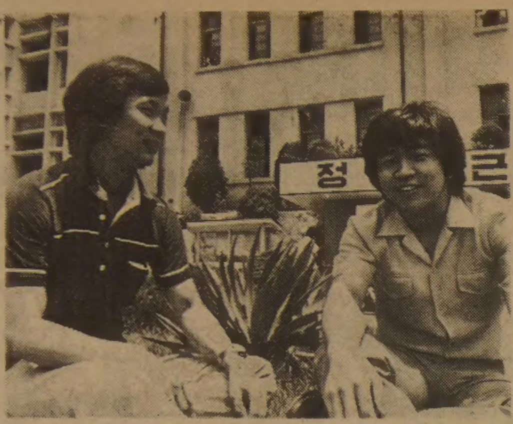
후원 : 주캐나다대사관, 한인연합회, 토론토 한국일보, 몬트리얼총영사관, 실업인협회, 동우회,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한인회, 대한항공, 외환은행, 밴쿠버총영사관, 블루어번영회, 무역인협회, KOTRA, 노년회, 민중신문, 코리언·저널, 교역자협의회, 조흥은행, 한일은행

경기프로그램

시간	선수구분	경기종목	경기방법	경기구분	선수
11:00	유치원생	과자따먹기	25미터 달려가서 과자 따먹기	개인	무제한
	중학생	100미터경주		단체	4인조
11:30	국교생	공바구니 넣기	2분간 바구니에 공 던져넣기	단체	10인조
	고교생	100미터경주		단체	4인조
12:00	대학생	100미터경주		단체	4인조
	일반(부인)	공굴리기	공을 굴려 25미터 지점을 돌아오는리레이	단체	10인조
12:30	노년	통치기	25미터 지점의 통을치고 오는 리레이식	단체	10인조
13:00	일반	단체축구결승전	단체대항으로써 8월7일 예선전을 거침	단체	
13:30	유치원생	바구니 터트리기	장대 위의 바구니 터트리기	단체	10인조
14:00	국교생	200미터리레이	한학생이 50미터씩 뜀	단체	4인조
	노년	바늘귀 꿰기	25 미터 달려가서 바늘귀 꿰고오는 리레이	단체	10인조
14:30	중학생	400미터 리레이	한 학생이 100미터씩 뜀	단체	4인조
	노년	공나르기	25미터 지점을 돌아오는 리레이식 공나르기	단체	10인조
15:00	고교생	200미터 경주		개인	무제한
	일반	줄다리기		단체	20인조
15:30	대학생	1,500미터 경주		개인	무제한
	일반	씨름		개인	무제한
16:30	유치원생	세발자전거리레이	한학생 100미터 리레이	단체	4인조
	중학생	장애물경주	200미터 경주	단체	4인조
17:00	고교생	기마전	4명 한조로 3개조까지 출전할 수 있음.	단체	10인조
17:30	일반	축구결승전	예선마친 선발 결승전		무제한
18:30	일반	마라톤	10키로 마라톤	개인	무제한
19:30			복권추첨		
20:30			폐회		



母校후배 向學熱뒷바라지 3년… 感激의 卒業


◇모교인 大東고교 교정에서 만난 韓선배(左)와 田후배。그들의 밝은 웃음에는 소년기의 불우를 극복해낸 자랑스러움이 깃들어있다。

不遇 이겨낸 先後輩의 情

청년은 인터뷰에 응하기를 거절했다。세상에 알려질 이유가 하나도없다는 것이었다。메마른 세상에 따뜻한 뉴스를 전해주는것이 얼마나 값진것인가를 역설했으나 막무가내였다。청년의 선행을 아는 유일한 증인격인 은사까지 설득에나서 3시간뒤 말문을 열게할수 있었다。불우한 후배 田聖賢군(20·체육부서무과)의 고교3년을 뒷바라지해온 불우했던 선배韓成林씨(25·상업)。6년선배인 韓씨는 지금 자신의 도움으로 고교를 졸업한 田군과함께 나란히 대학에 들어가는꿈을 실현시키기위해 의욕을 가다듬고있다。

大東상고출신 韓成林씨와 田聖賢군

韓씨는 편모슬하에서 어렵게 자라나 외삼촌의 도움으로 6년전 간신히 서울 大東상업고등학교 야간부를 졸업했다。그뒤 韓씨는 대학진학을 포기、서울평화시장의 봉제공장에 근무하면서 돈을 벌었다。

韓씨는 자신의 처지도 어려웠지만 「가난 속에서 오히려 남을 도울수있다」는 생각으로 고교시절위 은사인 金洪文교사를 찾아가『성실한 후배를 소개해달라』고부탁했고 金교사는 당시 고교1년에 입학한 田군을 소개했다。그후 韓씨는 한번도 등록마감일을 어기는법이 없이 모교를 찾아와 田군의 등록금을 내고는 말없이 돌아갔다。

"같은처지"찾아 學資 대줘 "이젠 함께 大學입학이 꿈"

어려서 부모와 헤어져 서울 城東區 九宜洞 판자촌에 방한칸을 얻어 형과 자취를해온 田군은 낮에는 관청의 고용원으로 일하면서 고교야간부에 진학했으나 등록금을 낼길이 막연했다。

田군은 韓씨의 도움으로등록금걱정이 없어지자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가 있었고 고교2、3학년을 통해 성적은 계속 학급수석을 차지해왔다。田군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던 날이 韓씨에게는『생애에서 가장 기쁜날』이었으나 韓씨는 자신의 「선행」이 외부에알려지는것을 꺼려 한마디 말도 하지않았다。학교에서도 아무도 韓씨의 「선행」을모르고있었고 다만 이들의 담임이었던 金洪文교사만이 두청년의 대견스러운 성장을 미소로서 바라보고있었다。

6년전 韓씨의 고교야간부 졸업식에는 축하해줄 가족이나 친척이 한사람도없었다。그러나 6년후인 지난봄 모교 졸업식장에나타나 자신이 남몰래 뒷바라지해온 후배田군의졸업을진심으로 축하해줄 수있었다。

졸업식장에서 두청년은「누가 누구를 도왔고、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다시는 입밖에 내지도 말자、그런 구차한 옛날에 매달려 있기에는 우리들의 앞날이 너무나도 원대하다』고 맹세했다。

『내가 聖賢이를 도와주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것이 더많습니다。그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긍지와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이었읍니다』고 韓씨는 말했다。

韓씨는 뒤늦게라도 대학에 진학하고싶다고 말했다。젊음이 있고 학문과 우정과 정열이 있는 대학캠퍼스에 대한 동경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는것。

한편 田군도 내년에 대학에 응시하기위해 열심히 공부하고있는데 韓씨는『이러다가 6년차이인 우리들이 같은해에 입학할지도 모르겠다』며 웃는다。【任都淳기자】

스토리

전국 해수욕장·遊園地등 電子오락실 新規허가

보사부는 여름철 전국해수욕장과 대도시주변의 피서지·유원지등에 전자오락실을 신규허가해 주기로했다。

10일 보사부에따르면 그동안 청소년풍기문제등으로 신규허가를 일체중지했던 전자오락실을 이달하순께부터 특정지역에 한해 다시 허가해주기로했는데 허가장소는 ▲전국해수욕장등 관광휴양지 ▲관광호텔 ▲공원 ▲대도시주변유원지등으로 제한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신규허가금지로 무허가업소가 난립하는 현상을 막고 특정위락지구나 휴양지구로 밀집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보사부당국은 이번 신규허가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오락기계주변에 방음용칸막이설치와 오락시설이용자들의 눈을 보호하기위해 지나친 광선발사를 금지하고 스크린위에 보안(保眼)막을 설치토록했다。

日에 진성콜레라 마닐라관광후 발병

【나고야9日聯=聯合】지난6일 마닐라로부터 귀국한71세의 일본 나고야시민 한명이 진성 콜레라환자인 것으로확인됐다고 일본후생성이 9일 발표했다。

후생성관리들은 나고야병원에 격리 입원해있는 이 노인의 대변으로부터 엘토르오가와형의 콜레라균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이노인이 지난3일 마닐라로 단체여행을 떠났으며 6일 나고야공항에 도착했을때 검역관들에게 설사가 난다는 하소연을했다고 전했다。

관리들은 현재 이관광단의 다른15명의 대변을 검사 예방조치를 취하고있다。

도둑누명 10代여공 寄宿舍서 投身자살

【光州】9일 하오2시께 光州市北區林洞100 모방직여공 기숙사 5층501호실에서 이 공장여공 成孝淑양(18·전남고 야간특별학급 2년)이 15m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聯合】

5行뉴스

◆全州신흥고교원인모를불

【全州】10일새벽4시25분께 전북全州시中華山동1가 신흥고교(교장 양영옥) 본관2층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3학년교실8칸·교장실·교무실과 지하실 일부등 1·2층 연건평4백여평을 태우고 상오6시께 진화됐다。【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illegible]·2861

本因坊방어전 5局 趙治勳 4집半이겨 3승2패 기록

【東京9日=宋孝彬특파원】趙治勳本因坊은 니이가다縣(나가오까)長岡市에서 열린 제37기 本因坊도전 7번기 제5국2일째인 9일 하오9시29분 도전자인 고바야시(小林光一) 9단을 2백12수만에 4집반차로 이겼다。

趙본인방은 이로써 3승2패를 기록、나머지 2국중 1국만 더이기면 본인방 타이틀을 방어하게된다。

흑을쥔 趙본인방의 남은시간은 2분、고바야시 9단은 6분이었다。

제6국은 21일과 22일야마가다(山形)縣무라야마(村山)市에서 열린다。

"「超過어음」擔保로 줬다"

李·張사건 2회公判 共榮·日新관계 被告人등 8명신문

"李·張、당초약속어기고 할인 어음去來 외부압력 없었다"

李哲熙·張玲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에대한 제2회공판이 10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합의11부(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주심 李玲愛·배석 張容國판사)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에는 共榮토건의 邊康雨사장(47)金東巖감사(47)邊泰洙상무(48)邊衛佐촌부이사(44)日新제강의 朱昌均회장(61)裵吉勳사장(35)孔德鍾전상업은행장(59)등 피고인7명과 법인체 共榮토건 법정대리인 李상덕이사(49)등이 출정했으며 1회공판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장낭독을 생략하고 사실심리에 들어가 검찰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을 모두 마치고 하오3시7분 폐정했다。검찰측에서는 이날 대검중앙수사부2과장 成敏慶부장검사 金相洙검찰연구관 朴桂宣 鄭相明서울지검 검사등이 간여했으며 金一斗 金東煥 趙鉉一 金聖在 李在祥변호사등이 변론에 나섰다。

◇朱昌均피고인(日新제강회장)

◇孔德鍾피고인(전商銀행장)

첫공판 李·張부부진술과 엇갈려 注目

이날공판에서 邊康雨 共榮토건사장과 朱昌均 日新제강회장등 관련기업 간부들은『李·張부부가 견질어음을 담보로만 사용하되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사채시장에서 할인유통시켰다』면서『李·張부부에게 속아 초과어음을발행한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李·張부부가돈을 댈때『건전기업 육성을 위한 특수자금이 5백억가량있는데 빌려줄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했다。

기업관계자들의이같은진술은앞서 1차공판에서李·張부부가『견질어음은 담보용이아니며 유통시킬것을 사전에 얘기했고 특수자금운운한 적도없다』고 진술한 것과는 상반되는것으로 李·張부부의 어음사기죄와 기업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죄성립여부에 대한재판부의 판단결과가주목된다。

이날 공판에서 邊康雨사장등 共榮토건 관련피고인들은 쿠웨이트 건설공사에 실패、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81년 2월 초순께 張여인의 전남편 金守哲피고인을 통해 李·張부부를 알게돼 ▲초과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81년 9월께는 담보용으로 발행한 어음이 계속 은행에 지급제시돼 李·張부부에게 항의했으나 회수를 위한 어음을 또 요구해 발행해주었으나 이어음마저 유통시켰다고 진술、검찰의 李·張부부에대한 어음사기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들은 82년3월께는 초과발행된 어음이 차용금2백억원의 4배나 더되는 8백95억원에 이르고 李·張부부가 더이상 결제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3백20억원의 어음을 발행해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해서는『회사를 살리기위해 어쩔수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들은 또『빌어쓴돈의 7배가넘는 어음을 발행한것은 처음 李·張부부가 음성자금을 양성화한다고해 말려든뒤 회사를 부도에 빠지게할수없어 계속 어음발행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항간의 정치자금유입설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朱昌均피고인은 李·張부부로부터 1백57억원을 지원받고 5백9억원의 어음을 발행해준것은 사실이나 어음을 발행해주라는 부탁이나 압력을받은 사실은 없다고답변했다。

朱피고인은 또 지난해 11월께는 李·張부부가 견질어음을 유통시키고 결제를하지 못해 朝興은행으로부터 독촉을받고 부도를피하기위해 日新제강이 20억원의 긴급자금을 융통、직접결제한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朱피고인은 친목회원인 전韓一은행장 韓洪洙씨를 통해 李哲熙를 소개받은뒤 신분을 조사해보니 국회의원과 중앙정보부차장을 지낸 예비역장성으로 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거래를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孔德鍾피고인은 朱회장으로부터 5차례에걸쳐 5천만원을 부정대출 사례금조로 받았다는 기소내용은 사실과다르며 단지2차례에 걸쳐 5백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뇌물수수부분중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음공판은14일상오10시에 李圭光피고인、林在璘 전朝興은행 사채업자등 나머지 피고인15명이 모두출정한다。

"5백만원만 받았다" 朱회장-孔행장 5천만원授受 부인

◯…이날 朱昌均회장은『孔德鍾행장에게 5천만원을 5차례에걸쳐 나누어준 사실이 있지않느냐』는 검사질문에『5백만원은 준적이 있으나 나머지 액수는 기억이나지않는다。5백만원도 명절때 인사로 준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대해 검사가『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한번도부인하지않고있다가 왜그러느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추궁하자『그당시 잠을 잘못자 피곤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대답、검사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孔행장도 5천만원에대해 이를 부인했는데 검사는 당시 孔행장이『검사님 나를 애로 아십니까。틀림없이 받았읍니다』고 말한점을 들어 추궁하자 孔행장은『당시 수사관 책상위에있던 신문에서 검찰이 곧 발표한다는 기사를보고 무슨 말을해도 믿지않을것같았고 직원이나 가족들이 수사확대로 곤욕을 치를것같아 만사가 귀찮은 심정에서 시인했다』고 대답했다。

朱회장은 또 회사발전이 곧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생각으로 전력을다해왔는데 회사도 파탄이나고 국민경제도 큰피해를 입게된데대해 어떤 벌이라도 달게받겠다며 울먹였다。

이날 출정한 기업체간부6명과 은행장등은 모두흰색모시한복차림이어서 1회공판때의 李·張부부의 푸른수의 차림과는 매우대조적이었다。

상오공판에 나온 朱회장과 孔행장은 서로의 관계를『20년간의 친구사이』라며『孔행장은 평소 존경하는분』、『朱회장은 기계전공 출신이어서 성격이고 정확한분』이라고 서로추켜세우기도했다。

鄭載巴군 保釋신청

무죄가 선고된 鄭載巴피고인의 변호인단은 10일 鄭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신분이 대학생인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카멜레온 檢事

李·張사건 搜査주역 成敏慶검사

秋霜같은「칼날」숨긴 온화한 선비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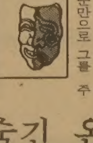
어떻게보면 대검중앙수사부 2과장 成敏慶부장검사(43·사진)도主役이다。

우선 큰손이 사채시장、금융계、기업계、증권가를 휘젓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李·張사건 수사에 착수한게 바로 成부장검사다。

3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된 매머드수사팀의 실무팀장 역할을 한 것도、진행중인 공판에 꼬박꼬박 주임검사로 간여하고있는것도 이사람이다。

갈래갈래 진행된 이사건수사에서「나무가 아닌 숲을본 검사」가 있다면 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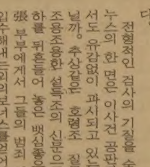
그렇지만 이때문만으로 그를 주역이라고 부르는것은 아니다。오히려 그를 주역이라 칭하는 이유는 따로있다。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바뀌어간 이 사건을 맡아 평소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까。그는 외모로 풍기는 모습이 칼날같은 민완검사보다는 온화한 선비풍이다。그런 그가 며칠씩 철야수사가 진행되던 무렵엔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 하는 인상이 들정도로 다른 어느 검사보다도 가장 샤프한 표정이 돼있었다。

사실 알고보면 그는 초임검사시절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거물 재야 법조인 J변호사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던 담찬 검사였고 76년 H전자 사건 수사때는 청와대 某인사의 관련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고비까지 넘긴 관록을 지닌 사람이다。

전형적인 검사의 기질을 숨긴 야누스의 한 면은 이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유감없이 과시되고 있는게 아닐까。추상같은 호령조 질문대신 조용조용한 설득조의 신문으로 천하를 뒤흔들어 놓은 뱃심좋은 李·張부부에게서 그들의 범죄 사실을 입수해내는외의보너스를얻어냈다。



張여인이 자기도취에 빠져 도도한 경제이론을 설파하며 공판이 클라이맥스에 이른 순간、느닷없이 정치자금설을 펼쳐『나외에 누구힘도 필요없다』는 답변을 끌어낸 솜씨는 압권이었다。

그러는 그도 요즈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公判廷이라는게 축구장의 둥근볼처럼 의외성이있는 장소인 만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탓이리라。그러나 그는 엉뚱한 핀치가 생긴다해도 만만치 않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다。【崔奎植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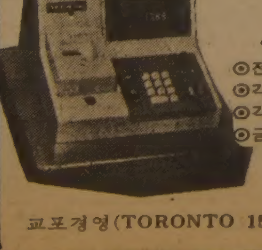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동등
～～ MASA ～～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15% 할인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영(TORONTO 15년 경력)분납가능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공은 둥글다"… 豫想도 팽팽

伊-西獨 내일새벽 세계耳目쏠린 한판

두팀 세번째 頂上도전

伊 로시 앞세워 波狀공격태세
西獨 負傷루메니게 出場 못할듯

월드컵축구

【마드리드9日=聯合】승리의 주사위는어디로 던져질까。12일새벽3시(한국시간) 이곳 산티아고·베르나베우경기장서 시작되는 제12회 월드컵축구대회 결승전을앞두고 이탈리아와 西獨의 사령탑은 비상체제에 돌입、必勝작전을 짜고있다。

역대戰績선 伊가 9승3패5무로 優位

런던의 승부도박사들이 이탈리아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예상도 팽팽하게 엇갈려있다。

이탈리아 우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떠오르는 태양」、서독을 「서산넘어 지는해」로 비유、파울로·로시를 앞세운 라틴의 로마軍團이 게르만의 重戰車를 물리치고 월드컵 3覇를 달성할것 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서독우세론자들의 응수도 만만치않다。서독이 이번 월드컵대회초반에 알제리에 패하고 오스트리아와 창피스런경기를 벌였지만 유럽에서는 가장 과학적이고 정교한 축구를 자랑하고 있으며 對프랑스전에서 나타난것처럼 역경에서도 포기하지않는 강인한 게르만 정신으로 무장되어있어 서독이 최후의 승자가 될것이라고 믿고있다。

이탈리아-서독간의 역대전적은 이탈리아가 9승5무3패로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월드컵서도 3번 맞서 이탈리아가 1승2무를 기록하고있다。

한편 결전을앞두고 서독의 유프·데어발감독은 기자회견을통해 골게터인 루메니게가 넓적다리부상때문에 결승전서 스타팅멤버로 뛰지못하게되었다고 발표、로시와 루메니게의 득점경쟁에 관심을 가진 팬들에게 아쉬움을주었고 서독의 전력에도 차질을 빚었다。

◇西獨-伊 역대월드컵전적

대회	연도	개최국	서독	이탈리아
1	1930	우루과이	불참	불참
2	1934	이탈리아	3위	우승
3	1938	프랑스	1차리그탈락	우승
4	1950	브라질	지역예선탈락	1차리그탈락
5	1954	스위스	우승	1차리그탈락
6	1958	스웨덴	4위	지역예선탈락
7	1962	칠레	준준결승탈락	1차리그탈락
8	1966	영국	2위	1차리그탈락
9	1970	멕시코	3위	2위
10	1974	서독	우승	1차리그탈락
11	1978	아르헨티나	2차리그탈락	4위
12	1982	스페인	—	—
비고			우승=2 준우승=1 3위=2 4위=1 참가=10회	우승=2 준우승=1 4위=1 참가=10회

西獨 데어발監督 伊 베아르조트監督

◇웃음뒤에 감춘 作戰 월드컵 축구결승전에서 한판승부를 벌이게될 西獨의 데어발 감독㊧과 이탈리아의 베아르조트 감독이 지난1월 조편성추첨때 서로 결승전에서만나리라는 사실을 전혀예상치못한채 만나 만면에웃음을 띠고있다。【마드리드10日UPI=聯合】

西獨 데어발監督 "초반不振 탈피 士氣높다"

우리는 지난4년간 유럽팀에는 한번도 진일이 없다。이번 월드컵서는 첫 경기서 알제리에 패하여 亂調였으나 차츰 좋아져 결승까지 올라왔다。프랑스와의 준결승전서 승리하여 선수들의 사기는 충천、결승전에 모든 힘을 쏟으려고 한다。

이탈리아는 물론 강한상대다。그러나 폴란드와의 대전때 그들은 게임 리듬을 잡지 못했으며 경기를 거듭할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득점원인 로시를 마크할 전문수비로 포르스터를 지명했다。

"祝杯는 우리가"

伊 베아르조트監督 "로시에 마지막裝飾 기대"

마드리드에서 우리는 승리의 축배를 들게될것이다。그러나 과신은 비극의 시초이므로 서독과 신중한 태도로 싸워야 할것이다。결승전의 승부는 기술보다 체력에 의해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선수들의 사기는 최고의 절정에 달해 있어 오히려 자만을 경계하고 있다。서독은 과거에 빛나는 기록을 세웠으나 지금 중요한것은 과거의 전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현재 컨디션이다。8게임서 5골을 터뜨려준 로시에게 마지막 한판을 장식해주도록 기대한다。

철벽守門將 伊디노·조프
국제게임 107회出戰의老壯 "건강좋아 은퇴할 생각없다"

西獨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이탈리아 GK디노·조프는 몹시 착잡하다。

그의 나이 40세。이번 결승전은 생애 최대의 한판이 될것이다。서독과의 대전으로 국제경기 1백7회를 기록한다。

『아직 은퇴를 생각해 본 적은없다。건강도 좋고 행운도 뒤따르고있으므로 은퇴얘기를 꺼내기는 너무 이르다』

결승전을 앞두고 20세연하의 동료선수들 틈에서 일광욕을 즐기고있는 조프。야구투수의 너클볼같이 휘어드는 대포알슛을 쳐내는 철통의 수문장이라고 누가 상상하겠는가。

『감독이 나를 발탁한것은 내가 일을 치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절대 나에대한 동정이 작용하지는 않았다』

조프는 자신만만하다。『골키퍼에 필요한 것은 근육이 아니라 탄력이다』그는 기구를 사용치않고 체조로서 몸의 유연성을 키우고있다。어떤 사람들은 조프의 장수비결이 출생지에 있다고 말한다。그가 태어난 이탈리아동부의 프룰리지방은 양질의 포도주 생산지로 알려져있다。냉담한 성격、야윈몸에 파이프를 잘물고다니는 베아르조트감독도 이지방 출신이다。

조프는 61년 프로에 입문、몇년후 나폴리로 옮겼으며 70년대초에 이탈리아의 명문 유벤투스로 이적했다。여기서 총 1천1백45분간 무실점의 대기록을 세웠다。

화려한 운동선수、영화스타들이 가득찬 이탈리아에서 조프는 22년간의 선수생활을 아무런 스캔들이나 대립없이 지내왔다。

그의 계획은 선수생활을 계속할수 있을때까지 하고 그후 코베르치아노의 코칭코스를수료、유능한코치가 되는것이다。【兪奭根기자】

한국、強豪브라질 제압

5개國 排球 伯仲勢…세트마다 接戰

3ー1

5개국 국제친선 남자배구대회가 10일 문화체육관서열려 개막전에서 한국은 남미의강호 브라질을 2시간50분만에 3ー1로 물리쳤다。이날 한국은 李範柱 張允昌 文湧冠 金炯泰 李元幸 韓壯錫을 스타팅 멤버로、브라질은 리베이로(1m92) 워메스터(1m93) 조토(1m90) 실바(1m84) 삼로(1m94) 라즈만(1m89) 등을 내세웠다。

한국팀주장이며 레프트주공격수인 姜斗泰、중앙속공수 柳重卓 최장신 李鍾敬(1m99)은 부상으로 출전치않았으며 브라질역시 1m97의장신 센터플레이어 람파리에로가 몸을다쳐 나오지못했다。

지난해 월드컵서 蘇聯 쿠바에이어 3위를 차지한 브라질은 오픈공격력이 한국보다 훨씬 앞섰으며 세터인 실바에서 뿜어져나오는 콤비플레이도 수준급이었다。

첫세트서 14ー12로 앞선 한국은 라즈만과 삼로에게잇달아 2점을 허용、14ー14 타이를 허용하고 15ー15、16ー16、17ー17 아슬아슬한 접전을 전개했다。브라질의 리베이로가 오버네트반칙으로 한국은 1득점한뒤 張允昌이 위력있는 스카이서브로 다시 1점을 뽑아 4번의 듀스끝에 첫세트를 따냈다。

제2세트서 한국은 李元幸대신 金相保를 기용하고 金京云과 金炯泰를 고루 활용하여 14ー9로 크게 리드를 잡은뒤 3점차로 제2세트를 따냈다。

브라질은 조토의 왼쪽오픈공격이 위력을 발휘、교체돼 들어온 1m95㎝의 리베이로가 브로킹서 맹활약하여 제3세트를 따냈다。마지막 제4세트서 한국은 13ー10으로 리드를 잡았으나 文湧冠의 왼쪽공격이 블로킹에 잡히고 金炯泰의 공격실책으로 13ー12까지 추격당했으나 상대공격실책과 張允昌의 블로킹으로 15ー12로 승리했다。

전원한국인으로구성된 심판진의판정에 브라질은 심한 불만을표시했다。주전선수의부상으로 대신코트에 나선 韓壯錫과 金相保등 신진급들은 예상외의 파이팅을 보여주었다。

◇첫날전적

한국 3 (15-12 11-15 15-12 19-17) 1 브라질

백호기全國야구 내일開幕
實業9·大學16개등 25팀 참가

아마추어 야구의 정상을가리는 제32회 백호기쟁탈 전국 야구대회가 12일 서울운동장에서 개막된다。참가팀은 실업9개팀、대학16개팀으로 모두 25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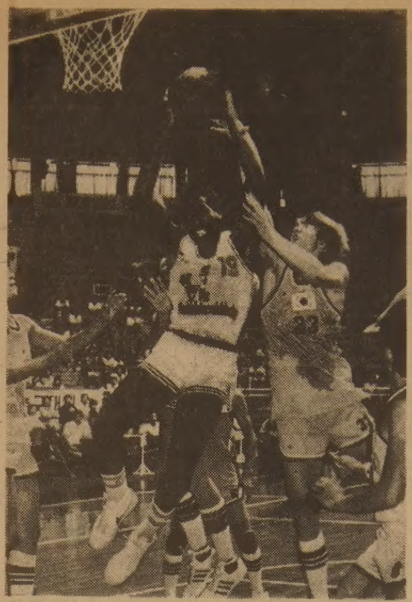
백호기대회는 노련한 실업세와 패기넘친 대학세의 대결로 큰 관심을 모아왔다。대학팀들은 76·77·78년 3차례 결승에진출、정상을노크했으나 번번이 실패、이번대회를 대학우위의 결정적인 찬스로 벼르고있다。

近畿、建大에역전승 韓日대학 친선야구

긴끼(近畿) 대학야구팀초청 韓日대학 친선야구대회 최종 5차전이 10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려 긴끼대가建國大에 4ー2로 승리、내한전적2승1무2패를기록했다。

◇최종전적

긴끼대	000	400	000	4
건국대	100	000	001	2



◇오스트리아—한국대학선발대전에서 케리·대시(㊥19번)가 金星旭(㊨33번)을 제치고 리바운드볼을 따내고있다。

大學선발、키 작아 恨

국제男子농구 오스트리아에도 憤敗
한국代表등 오늘부터 6強리그戰

한국대표·스웨덴(A조) 美國·自由中國(B조) 뉴질랜·오스트리아(C조) 등6강이 결승리그에 진출했다。

82년 서울국제초청 남자농구대회는 10일 장충체육관서 예선리그를 완료、C조의 한국대학선발은 오스트리아에 70ー67로 패해 결승리그진출이 좌절되었다。

대학선발은 말레이지아、印度와함께 하위리그를벌인다。

대학선발은 전반 중거리슛이 부진해 일방적인 리드를 당한후 후반 金賢俊、高明和의 중거리도 추격을 벌였으나 역부족、분루를 삼켰다。

오스트리아는 헤리·대시가 24점을 얻는 활약을 보였고 리바운드에서도 39ー18로 일방적인 우세였다。

B조 1·2위 다툼인 美國대학선발팀과 自由中國의 대전은 美國팀이 농구본고장의 기술과 체력과 신장을 살려 83ー46으로이겨 2승으로 B조수위가 되었고 自由中國은 1승1패로 2위에머물렀다。

美國은 공격보다도 수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국내에는 수비형태로는 잘 나타나지않는 변칙 1·2·2존과 프레싱·맨투맨등 다양한 수비를 보여주었다。

오스트리아와 한국대학선발대결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수 없는 본보기였다。또한 중거리슛만으로는 게임을 이길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국가대표나 대학선발의 공통적 취약점은 어시스트·가드와 수비를 교란할수 있는 센터가없다는점。대학선발은 金仁五를 어시스트·가드로 내세웠으나 볼을 외곽에서돌리는데 그쳤을뿐이다。

◇제3일 예선리그 최종일

▲C조 오스트리아 70 (25-39 45-28) 67 대학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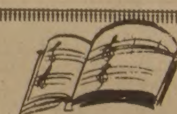
▲동순위=①뉴질랜드 2승 ②오스트리아 1승1패 ③대학선발 2패

▲B조 미국 83 (48-25 35-21) 46 자유중국

▲동순위=①미국 2승 ②자유중국 1승1패 ③말레이지아 2패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1 : 3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 : 00 유년중고장년모임 : 3시 20분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 : 30 수요예배오후 7 : 30 영어예배 오전10 : 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 : 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 : 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성경공부 2 : 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수요오후 7 : 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 : 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욱희	주일영어 1 : 00 주일성경 1 : 00 주일예배 2 : 00 수요예배 8 : 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 : 00 12 : 30 수요오후 7 : 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오후 4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	일요오후 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전11 : 0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7 : 30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7-6847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2시반 영어예배 1 : 30 새벽기도6 : 00 (오전)토, 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KIM'S ART GALLERY　Picta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e Screen Printing)
◉Engrau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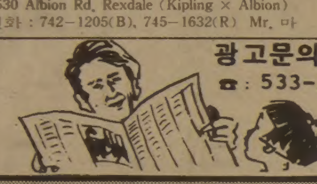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복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보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a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신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십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병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영업시간: 월~토 : 오전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645 Bloor St. W.
전화 : 531-4165(R), 530-0522(B).
조 지섭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Full Time Sales Person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으로 용모단정하고 영어회화에 능통한 Sales Oriented된 분을 환영함. (관심있으신분 직접 문의)

고 려 보 석
Eaton Centre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Donut Shop Manager구함.
직접 내방 바람.
1485 Gerrald St. E(& Coxwell)

Driver & Salesperson 구함.
★ Commission basis.
토론토에 있는 각 Variety Store에 Juice 판매하실 분.
약간의 영어 요구됨. 운전면허 있어야함. 트럭은 제공받음.
돈벌기에 전망이 밝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전화 : 482-4807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여자분)
좋은가격과 일하시기 좋은장소 보장함.
전화 : 466-1461

Becker Store Manager 구함.
당분간 맡아서 보아주실분(경험자 우대)
전화 : 924-7696 (Mr. Lee)

Part Time 남자헬퍼 구함.
(Richmondhill 지역) 전화: 884-5433

가게를 맡아 운영해주실분 찾음.
보증금 요(스탁), 주매상: $8,000 이상
연락처: 491-9701, (오후 6시이후 292-8838 Mr. 신)

파실물건이 있으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하숙

Room & Board (New Markham, Finch, Scarboro지역) 하숙원함
독방과 식사제공 (1일 1식. 토·일요일은 2식)
연락처: 6시 이후 전화: 425-6068 Mr. Lee 월·수요일은 제외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첼로 개인지도(레스리×휜치)
전화 : 492-7472 (Mrs. 연)

도자기 공예를 전공하실분 개인지도함
전화 : 233-9534 정 동 훈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사진 식자기 급매 (SAKEN SPICA-K)
교회 또는 인쇄소에 적당.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Hwy 10 × 던다스, 주 6일 매상 : $4,300
비데오머신 월 최저 $1,000 보장
(일요일 영업하면 가게였음)
리스 2년+5년, 렌트 $750, 가격 $5만+스탁(현금)
전화 : 276-3266

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500(m.) 리스: 5+5
아스킹: $39,000+스탁. 전화 : 636-1697

"Fast Food"
1. 도너스 & 써브머린. 주매상 : $8,000
2. Hamburger drive-in. 주매상 : $8,000
3. 식당 (Tavern & Banquet) 주매상 : $10,000
4. 식당 (Tavern), 주매상 : $6,000 중국음식점으로 개조도 가능.
5. Dry Cleaners Pick Up 주매상 : $500

Jim Sklavos
Pan-National Real Estate Ltd.
Phone: 461-1114

Variety Store for Sale(Georgetown, Ont)
주매상 : $6,500. Open한지 3개월 되었음.
경쟁없는 가게. 넓이 : 2,000s.f. 렌트 : $1,300(M.)
185 Mountainview Rd. N.
관심있으신 분 내방 바람. 1-873-1377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Ice Cream Store (Hotdog·Donut·Sandwich) 토요일 : Half Day. 일요일 : Close
1184 Weston Rd.(Eglinton & Weston)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식당 & 타번(Tavern) 매매
가격 : $55 000. 좌석 : 40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6-5990 (크리스)

Grocery Store - Private Franchise
Stock downpayment, S.W. of Toronto,
Best Offer. Phone: 259-2123 (이자예브)

78년도 CHEV. PICK-UP 트럭 급매
가격 : $3,800
전화 : 665-8233 (아침 10시~저녁 6시)

---

(1)New Franchise Ice Cream & Sandwich Bar.
도미니언과 쉽슨 사이에 있는 커다란 Mall안에 있음.
Lease : 10년. Mortgage : $75,000. 12%. 5years.
(2)New Franchise, Hamburger(Yonge & Dundas)
주매상 : $9,000. Lease : 20년. 다운페이: $100,000

Patrick Ho. R.E.
Call Goe Sham
전화 : 593-8967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300~$4,800. 아스킹 : $26,000. Good Lease
Near Niagara Fall 전화 : 266-5895 (Mr. Kim)

Baskin & Robbins Ice Cream Store 매매
Franchise임. 리스 : 10년
전화 : 241-9593

성업중인 Variety Store 건물과 함께 매매.
주매상 : $3,600. 아스킹 : $85,900
전화 : 923-1206. Mrs. Lee (다운타운 지역)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Variety Store 급매. (스카브로 지역)
주매상 : $3,300~$3,500. 리스 : 9년. 렌트 : $350.
이층 살림집 렌트 가능. 전화 : 757-6458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성업중인 햄버거·레스토랑 급매
렌트 : 2년($385). +3년
아스킹 : $24,500 전화 : 251-1908 Mr. 리

---

(1)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 $500/M.
리스: 5+5. 아스킹 : $38,000+스탁.
(2)Hunts Bakery in Mall(open)
주매상 : $9,000. 6days Short Hour. 아스킹 : $220,000
다운페이 : $150,000. Best Bakery in Canada
(3)Coffee Shop in Building.
주매상 : $6,000. 5days Short Hours. 아스킹 : $210,000
다운페이 :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

(1)Hamburger Shop
30여대 자동차 파킹 가능한 건물임. 건물은 McDonald 이나 Harvey와 같이 단독 건물임.
Asking : $150,000(건물포함)

(2)Variety Store in Mall
주매상 : $5,500+Lotterio+Post Office.
Lease : 5년+5년 Option. Rent : $1,800(관리비, Tax포함)
영업시간 : 월~토(9:00 a.m~9:00 p.m) 일요일은 쉼.
Asking : $100,000+스탁

(3)Variety Store with Gas Bar & Post Office
건물 2층에 2Bed Rm. 3Bed Rm Apt가 있으며, 단독주택도 있음. 그곳에서 월세가 $760 수입됨. 현재 여자노인 혼자 경영 하루매상 $300이나 전에는 주매상 $5,500넘던 가게였음. 작은돈을 투자하시고 살수 있으며, Rent에서 나오는 돈으로 Mortgage 지불하고 남음.
Asking : $13,500. Mortgage : 1st. 11¼% $72,000
2nd Mortgage도 가능함.
연락처 : Mr. 박(오샤와) 1-623-7000

가게렌트

Gift Store for Rent
렌트 : $800/M. 넓이 : 800 s.f
663 Bloor St. W. 전화 : 531-1563(그레이스)

여권

여권번호 : 426871
분실장소 : Hamiton Downtown지역
연 락 처: 526-0014 (방 용학)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아파트렌트

3 Bed Room. (M/$470).
7월말경 입주 가능 (Lawrence×Caledornia)
전화 : 651-4431

집렌트

2층 전체를 세놓고자 함(565 Pape Ave.)
2 Bed Rm. with 부엌 & 목욕탕.(노인부부환영)
월세: $350(M.) 전화 : 591-6863, 438-4519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E)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순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O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李석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이정웅)

청 솔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향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llegible]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